

碩士學位論文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의
입체 표현 활동에 관한 연구

- 제주도내 5·6학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방 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UNIVERSITY LIBRARY

11076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이 은 숙

2001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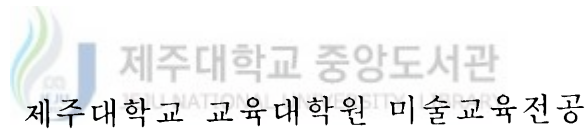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의 입체 표현 활동에 관한 연구

- 제주도내 5·6학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방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4월 일



제출자 이 은 숙

이은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1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초등학교 미술 교육에서의 입체 표현 활동에 관한 연구
- 제주도내 5·6학년을 중심으로 -

이 은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방 회

입체 표현 활동은 아동의 내면세계를 삼차원공간에 표출시킬 수 있는 감각 자극 활동으로 아동의 창의력 신장 및 전인적 성장에 중요한 활동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제주도내 초등학교 미술 교육에서의 입체 표현 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입체표현 교육의 필요성과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찾아보고 초등학교 미술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교사 203명과 5·6학년 아동 363명을 대상으로 하여 입체 표현 활동에 대한 흥미도 및 학습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분석에 의하면 아동은 미술교과의 여러 영역 중에서 입체 표현 활동에 가장 높은 흥미를 보이고 있었으나 현장의 실정은 이런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능력을 신장시켜 주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우선, 고정된 시간 내에서의 표현활동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달단계의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아동들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나타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사용하는 재료도 일부분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다양한 재료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사고와 경험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학교의 열악한 시설환경과 불충분한 시간적 여건은 교사들의 적극적인 교수활동을 이끌어내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과전담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미술교과의 전문성을 살려

※ 본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술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이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교사들에게는 변화되어 가는 아동의 욕구와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수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들이 자신의 작품활동 전반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감상 학습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들의 입체 표현 활동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종 미술 관련 행사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회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입체 표현 활동을 선호하는 아동의 흥미나 욕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며 미술 교육을 마치 회화중심의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선 학교 현장에서 미술교과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학교운영, 미술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개선의지를 통한 단위 교수 학습 시간의 충실한 운영과 함께 교육행정가의 교육에 대한 안목과 관심을 토대로 한 지원이 합리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짐으로써 조금씩 개선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의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5
1. 입체표현 교육의 필요성	5
2. 구조적 조형의 개념과 지도	8
3. 입체표현 발달 단계	9
4. 고학년(5, 6학년)의 일반적인 특징	12
5. 미술과 교육과정	14
III. 입체 표현 활동에 대한 실태분석	21
1. 연구 대상 및 자료 분석 방법	21
2. 설문결과 분석	22
IV. 결론	56
참고문헌	58
<Abstract>	60

표 차 례

<표 1> 설문지 구성 내용(교사용)	3
<표 2> 설문지 구성내용(아동용)	4
<표 3> 고학년의 미술적인 발달 및 교수목표	13
<표 4> 미술과 지도 영역	15
<표 5> 5, 6학년 내용체계 (제6차 교육 과정)	16
<표 6> 5학년 제재별 참고작품 분석	17
<표 7> 6학년 제재별 참고작품 분석	18
<표 8> 5,6학년 내용체계(제7차 교육 과정)	20
<표 9>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교사)	22
<표10>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아동)	23
<표 11 > 미술실의 유무	24
<표 12 > 학교에 갖추어진 용구	24
<표 13 >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	25
<표 14 > 영역별 지도 상황	26
<표 15 > 아동의 미술발달단계의 특성 파악 여부	26
<표 16 > 미술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27
<표 17 > 교육과정 재구성 실태	28
<표 18> 연간 입체 표현 활동 지도 횟수	29
<표 19 > 재료 선정 방법	30
<표 20 > 재료 준비 방법	30
<표 21 > 수업에 활용해 본 재료	31
<표 22 >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재료	32
<표 23 > 찰흙 사용 시 다른 재료를 같이 사용해 본 경험	32
<표 24 > 찰흙과 병행하여 활용한 재료	33
<표 25 > 주제와 재료에 대한 구상 및 준비에 대한 지도	34
<표 26 > 표현 활동 시간 지도 방법	35
<표 27> 작품의 완성 후 감상하는 시간 마련 정도	36
<표 28> 완성된 작품의 전시 여부	36
<표 29> 전시하지 않는 이유	37
<표 30> 시청각 자료의 이용 정도	38
<표 31> 조소 지도에서 사용하는 시청각 자료	38
<표 32>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39

표 차 례

<표 1> 설문지 구성 내용(교사용)	3
<표 2> 설문지 구성내용(아동용)	4
<표 3> 고학년의 미술적인 발달 및 교수목표	13
<표 4> 미술과 지도 영역	15
<표 5> 5, 6학년 내용체계 (제6차 교육 과정)	16
<표 6> 5학년 제재별 참고작품 분석	17
<표 7> 6학년 제재별 참고작품 분석	18
<표 8> 5,6학년 내용체계(제7차 교육 과정)	20
<표 9>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교사)	22
<표 10>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아동)	23
<표 11 > 미술실의 유무	24
<표 12 > 학교에 갖추어진 용구	24
<표 13 >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	25
<표 14 > 영역별 지도 상황	26
<표 15 > 아동의 미술발달단계의 특성 파악 여부	26
<표 16 > 미술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27
<표 17 > 교육과정 재구성 실태	28
<표 18> 연간 입체 표현 활동 지도 횟수	29
<표 19 > 재료 선정 방법	30
<표 20 > 재료 준비 방법	30
<표 21 > 수업에 활용해 본 재료	31
<표 22 >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재료	32
<표 23 > 찰흙 사용 시 다른 재료를 같이 사용해 본 경험	32
<표 24 > 찰흙과 병행하여 활용한 재료	33
<표 25 > 주제와 재료에 대한 구상 및 준비에 대한 지도	34
<표 26 > 표현 활동 시간 지도 방법	35
<표 27> 작품의 완성 후 감상하는 시간 마련 정도	36
<표 28> 완성된 작품의 전시 여부	36
<표 29> 전시하지 않는 이유	37
<표 30> 시청각 자료의 이용 정도	38
<표 31> 조소 지도에서 사용하는 시청각 자료	38
<표 32>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39

<표 33> 전담제가 운영되는 교과	39
<표 34> 미술 교과를 전담하고 있는 교사	39
<표 35> 교과전담제에 대한 생각	40
<표 36> 새로운 미술 교육 이론이나 교수법을 접해본 경험의 유무	41
<표 37> 새로운 이론을 알게 된 방법	41
<표 38> 조형요소 및 원리의 지도에 대한 생각	42
<표 39> 입체 표현 지도 시 느끼는 어려운 점	42
<표 40> 미술과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43
<표 41> 적당한 연수기간	43
<표 42> 연수의 형태	44
<표 43> 좋아하는 과목	45
<표 44> 가장 좋아하는 영역	45
<표 45> 미술시간 중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	46
<표 46> 입체 표현 활동에 대한 생각	47
<표 47> 입체 표현 재료 준비방법	47
<표 48> 재료를 준비하는 방법	48
<표 49> 주제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직접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 본 경험	48
<표 50> 사용해 본 재료	49
<표 51> 입체 표현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재료	50
<표 52> 특정 재료를 좋아하는 이유	50
<표 53> 학교에서 제공하는 재료에 대한 불만의 유무	51
<표 54> 학교에서 제공하는 재료에 대한 불만의 종류	51
<표 55> 주제를 구상하는 시기	52
<표 56> 작품 제작 방법	53
<표 57> 작품을 만드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53
<표 58> 작품의 완성 후 감상시간 마련 여부	54
<표 59> 완성된 작품의 처리	55
<표 60> 조소작품을 집에 가져간 경우 처리 방법	55
<표 61> 희망하는 미술교사	56
<표 62> 참가해본 미술행사	56
<표 63> 그리기 이외의 희망하는 미술대회	5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다양한 사회적 변화의 시기였던 20세기는 미술가들에게도 다양한 재료와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작가들은 자신이 독특한 미술양식과 표현방법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 작가들의 개성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개방적인 표현, 생동감 넘치는 창의적인 표현욕구에서 이루어지는 조형활동은 기존의 공간과 재료에 대한 제한을 거의 무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의 미술동향은 학교의 미술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교육활동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다양한 교수방법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미술은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 조형언어를 통하여 창조, 발전시켜 나아가는 예술의 한 영역」¹⁾으로, 현대의 아동들에게는 「주변의 조형물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유하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명랑하고 운택하게 만들려는 의지 및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²⁾ 따라서 미술과 교육은 아름다움을 찾는 교육으로서 미술작품 뿐만이 아니라 미가 존재하는 생활전반을 교육의 장으로 넓혀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조소는 그 재료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단계적인 제작과정을 통하여서는 새로운 형태 및 표현방법을 발견하여 표현의욕을 높여줄 수 있는 영역이다. 조소학습을 하는 동안 아동들이 손과 머리를 동시에 사용하여 온몸으로 체험하는 작업을 통해 아동들은 스스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데 이는 조소학습이 주는 심리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

1) 이규선 외 (2000),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p.336

2) 양경희(1999), 열린아동미술교육, 서울:학지사, p.10

서 다양한 재료의 취급과 활용, 표현의욕의 고취, 표현 능력의 향상 등은 조소의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교육 활동에서의 조소교육은 어린이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³⁾ 이런 면에서 조소교육은 흥미있고도 의욕적인 학습분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소학습의 중요성은 학교현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되고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각종 행사에서도 대부분의 활동이 회화분야에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소교육의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교사의 역할과 현재 미술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조소의 특성과 아동의 발달 단계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조소교육의 방법을 고찰해 본다.
- (2) 현행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고찰하여 바람직한 조소교육의 방향을 알아본다.
- (3)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재의 조소교육의 실태 및 교과전담제 운영실태를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 바람직한 조소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3) 이규선, 김동영, 전성수(1998), 미술교육학개론, 서울:교육과학사, P.354

(1) 문헌연구

교육과정의 분석은 교육부에서 제작한 교육과정해설집과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로 살펴보고, 조소의 특성과 아동의 발달단계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문헌과 선행 연구물을 참고로 하였다.

(2) 설문지에 의한 실태조사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교 아동과 교사를 대상으로 시지구 6개교, 읍면지구 12개교, 산간·도서 지구 3개교 등 21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학급 담임교사와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 내용(교사용)

항목	내용	문항번호
교사들의 미술교과에 대한 인식	교사들의 미술교과와 조소 영역에 대한 견해	1, 2
교육과정 재구성 실태	재구성의 필요성 및 실태	3, 4
아동 미술 발달 단계	아동의 발달 단계 인지 정도	5
학습자료의 보유 및 활용	학교 시설 및 학습 자료의 활용상태	6, 7, 8, 9, 10, 11
재료의 준비	재료 선정 및 준비 방법	12, 13
작품제작 계획 지도	계획단계의 지도 방법 및 자료의 활용	14, 15, 16, 17
작품제작활동	제작활동시 주안점	18, 19, 20, 21
감상지도	감상시간 운영의 여부	22
작품활용	작품의 보관 및 처리문제	23, 24
교과전담제운영현황	교과전담제 운영의 실태	25, 26, 27
교사의 연수활동	연수의 필요성과 기간 및 형태에 관한 의견	28, 29, 30, 31, 32

<표 2> 설문지 구성내용(아동용)

항목	내용	문항번호
아동들의 미술교과에 대한 인식	아동들의 미술교과와 조소 영역에 대한 견해	1, 2
조소학습에 대한 의견	조소 학습에 대한 흥미 여부	3, 4
재료의 준비	재료 준비 방법 및 재료에 대한 견해	5, 6, 7, 8
재료의 활용	다양한 재료의 경험 여부	9, 10, 11
학습 준비 및 계획	주제에 따른 재료의 준비	12, 13
제작 활동	작품제작시 주안점 및 용구의 사용 여부	14, 15, 16
감상학습	감상학습시간	17
작품활용	작품의 보관 및 처리문제	18, 19
교과전담제운영현황	교과전담제 운영의 문제점	20, 21
미술대회 참가 현황	분야별 대회 참가 현황	22, 2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이론적 배경

1. 입체표현 교육의 필요성

입체표현이란 삼차원의 공간에서 전후, 좌우 방향으로 사물을 모두 드러내 보이고 감상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런 입체표현은 아동들로 하여금 주변의 사물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심상 표현을 하는 작업을 통하여 시각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줄 수 있다. 평면이 아닌 입체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사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고, 감수성을 계발시키며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게 된다.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입체표현의 분야에는 조소와 구축조각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소란 조각과 소조를 의미하는 말이다.」⁴⁾ 조각(carving)은 목재나 석재 등에 새겨서 표현하는 것이고 소조(modeling)는 점토나, 석고, 시멘트 등과 같은 가소성 소재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활용하여 붙여가는 표현이나 오브제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철재나 플라스틱등 경성 소재를 가지고 용접 또는 접착으로 표현하는 것을 구축조각(construc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대 미술의 경향에 맞추어 현재 학교의 입체표현 교육은 종래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재료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며 활동하는 구조적 조형 교육으로 한 걸음 진보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들로 하여금 현시대와 그 문화의 물리적이며 정신적인 것들을 표현하거나 이해」⁵⁾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양한 재료의 선택과 활용을 통한 작업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아동들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체표현 활동이 어떤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박철준(1997), 공간교육사전, 시청각교육사, p.165

5) 리춘호(1992), "미술교육에서의 구조적 조형의 교육적 접근" 「미술교육논총」, 제1집, 한국미술교육학회 p.132

조성문은 예술교육의 목적에 준해서 인간교육, 사회교육, 전통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교육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⁶⁾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자아발견과 그 형성, 창조적 능력의 개발 및 연령에 따른 정신적 성장을 도와 감성과 지성, 개성과 사회성이 조화된 인격을 형성」⁷⁾ 하게 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술의 필요성에 호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 문화 수용 역량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되어 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작가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의 개성인 문화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현대 미술 교육에서의 입체표현 활동은 아동들이 다양한 재료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재료를 이용하여 표현하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오정현은 말하고 있다.⁸⁾

첫째, 표현력을 길러준다. 입체표현은 어린이의 자아표현의 또 다른 방식이다. 마음은 말과 표정만으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말과 글은 자꾸 쓸수록 사고가 발전하고 그 내용이 풍부해지듯이 표현능력도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경험을 자주 가짐으로 해서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조형 활동은 훌륭한 자신의 표현방법이다. 춤은 몸으로, 글짓기는 글을 통해서 표현하지만 조형활동은 말 못하고 수줍은 어린이들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표현방법이다.

둘째, 정서발달을 돕는다. 어휘가 부족한 어린이에게는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만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보거나 점토를 만지면서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어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쌓였던 불쾌한 감정이 씻어지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문제아의 심리치료법으로 예술치료(Art Therapy)⁹⁾는 점토를

6) 조성문(1992), “소조와 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미술교육논총」, 제1집, 한국미술교육학회 p.60

7) 이창립(1990), 「교장자격연수교재」, p.168.; 조성문(1992), 「소조와 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한국미술교육학회 p.60에서 재인용

8) 오정현(1986), 미술교육을 위한 유아창작공예, 형설출판사, pp.20-23

9) 예술 각 분야를 매체로 하여 심리학적인 분석과정과 창작과정을 병행하여 각기 다른 방법의 다양한 치료의 역할을 함으로서 정신치료는 물론 재할 및 특수교육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주무르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보고 핑거페인팅(Finger Painting)등의 조형활동을 통해서 마음 속에 억압되어 있는 심리적 갈등을 발산시켜 주는 방법이다. 이와같은 카타르시스 효과는 다만 문제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조형활동의 경험은 아동의 정신적 긴장이나 갈등을 정화시켜 주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감정표현의 범위를 넓혀준다.」¹⁰⁾

셋째, 창조성을 길러준다. 창조성이란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 생각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서 그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찾아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것은 남의 물건이나 생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만들어내는 능력인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현대사회를 살아 갈 어린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넷째,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사회성 발달은 어린이들이 서로 어울려서 재미있게 공동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의사교환과 기술을 습득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터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다양한 조형활동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데 크게 공헌을 하게 된다.

다섯째, 인지 발달을 돕는다. 인지발달이란 인간의 내면적 요인이 외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림을 그리거나 3차원의 입체물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마음의 상태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조형활동은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 속의 생각을 조형활동으로 표현하려는 생각이 구체적인 개념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동물이나 사물을 그리려면 그 대표적인 특징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상상하여 관찰한 바를 독창적으로 표현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찰력과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만들고 꾸미고 활동하는 조형활동은 인지발달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신체발달을 돕는다. 찰흙활동은 생각이나 변화뿐만 아니라 손, 팔, 눈 등을

10) 현광덕(1992), “초등 미술교과서의 조소표현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1집, 한국미술교육학회 p.66

다 움직여야 한다. 핑거페인팅을 하는 동안에는 열 손가락을 다 동원해서 나가기 때문에 손가락의 근육발달이 이루어진다. 찰흙을 주무르고 만드는 과정은 소근육의 발달과 눈과 손의 협응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신체의 각 부분의 기능과 조화로운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찰흙 조형 활동은 아동의 정신적 측면에서의 발달은 물론 신체적 기능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구조적 조형의 개념과 지도

현재 학교에서는 전통적인 재료인 찰흙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물과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물건까지도 입체표현의 재료로 도입하여 물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물자의 절약, 환경교육의 효과까지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조소의 재료나 표현 기법의 범위를 벗어난 현대의 다양한 재료와 표현 기법 등을 모두 수용하는 표현양상을 구조적 조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를 리춘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작가는 자기의 표현에 대한 재료의 선택과 선택된 재료의 표현과정에서 개성있고 자기만의 표현을 찾고자 노력한다. 구조적 조형이란 이런 작가의 욕구에 의하여 미술의 일반적인 목적이나 주제에 따른 조건이 없는 순수한 기초 조형으로서 점, 선, 형태, 공간, 질감 등의 조형요소들을 균형, 변화, 통일, 비례 등의 조형원리에 의해 활용하여 발상된 이미지를 통일된 형태로 표현하는 입체적인 표현 예술이다.”¹¹⁾

이러한 구조적 조형의 개념의 도입으로 초등학교의 입체표현 활동도 많이 변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조소의 재료나 기법은 물론 다양한 주변의 친밀한 물건들이 수집되어 아동들로 하여금 다양한 기법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도록 유도해내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조형의 지도는 다음의 여덟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리춘호는 주장하고 있다.¹²⁾

11) 리춘호(1992), “미술교육에서의 구조적 조형의 교육적 접근” 「미술교육논총」, 제1집, 한국미술교육학회 p.132

12) 상계서(1992), p.138

첫째, 교사의 주도면밀한 학습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조적 조형의 지도는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중요하므로 작품제작 이전에 수업의 목표나 작품제작의 의미 등과 더불어 교육효과를 고려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둘째, 참고작품의 감상은 연상작용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모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 표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방방지를 위한 충분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셋째, 학습도구나 연자의 사용법을 사전에 반복지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작업 시에는 항상 작업반경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교사는 아동들의 조형 작업을 나름대로 예상하여 이에 필요한 용구나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동들의 조형작업은 어떤 표현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료는 주어진 조건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개인작업 또는 공동작업이라는 활동방법은 학습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자세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일곱째, 제작장소의 제한을 두지 말고 실내, 운동장, 숲속 등의 야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작품 제작 활동 시간에 교사는 아동의 상황을 계속 관찰하면서 지도가 필요한 어린이를 보조해 주고 지도해 주어야 한다.

교사들은 이러한 지도 사항들은 잘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교사의 적절한 지도 방법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3. 입체표현 발달 단계

아동은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며 자신의 세계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하여 기쁨을 맛보게 되고, 3차원의 세계를 공간에 표현함으로써 평면에 표현하면서 느끼던 저항감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발달단계에 따라 자기 수준에 맞는 경험을 함으로써 각 학년에서 경험해야 하는 다양한 표현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은 교

육현장에서 노력해야 할 점이라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체표현의 발달단계는 평면 표현의 연구에 비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입체표현의 발달단계는 학자에 따라 이름과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표현 형식의 변화와 차원의 변화라는 두가지 중요한 흐름으로 전개된다.」¹³⁾ 여기에서는 골롬브(Golomb)와 로웬펠드(Lowenfeld), 이길종의 견해를 종합한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이규선, 김동영, 전성수)의 이론을 살펴보겠다.

이들은 입체표현의 발달과정을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하나는 표현형식의 변화로서 놀이적 표현에서 상징적 표현으로, 다시 사실적 표현으로서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차원의 변화로서 평면적 표현에서 입체적 표현으로, 다시 공간적인 입체표현으로서의 변화이다¹⁴⁾. 이 두 가지의 흐름을 고려하여 입체 표현 발달단계를 인물표현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1) 탐색적 유희기 (4세 이하)

「입체 재료를 가지고 즐기면서 평면적으로 구체적 형상을 탐색하는 단계」¹⁵⁾이다. 어느 정도 자신의 근육을 통제할 수 있는 시기로서 구체적인 목적 없이 재료를 갖고 놀다가 뱀모양의 긴 형태나 공모양의 둥근 형태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상에 언어를 사용하여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며 정서적 성장을 하게 된다.

(2) 평면적 상징기 (4~ 8세)

「평면적 상징기는 입체재료를 평면적으로 표현하면서, 대상을 상징적,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단계」¹⁶⁾이다. 이 시기는 사물의 특징을 인지하고 이를 자신만의 상징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라내고 덧붙이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식

13) 강기원(1996), “조형재료의 체험을 통한 입체 표현력 신장 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12

14) 이규선·김동영·전성수(1998), 전계서, p.215

15) 이규선·김동영·전성수(1998), 전계서, p.215

16) 이규선 외 (2000), 전계서, p.123

세계를 의욕적으로 구성해내는 시기로 두족류의 인물표현이 등장하는데 머리와 두 다리만으로 표현된 것이다. 긴 다리는 몸통의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두 다리 사이의 공간을 배로 간주하기도 한다. 머리 양옆으로 팔이 붙기도 한다. 어느 정도 지나면 배로 표현하는 몸통이 나타난다. 이것은 머리와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등장하며 처음에는 머리카 다리보다 짧고 가늘고 얇지만 점차 길어지고 통통해진다. 이 시기의 입체표현은 입체재료를 가지고 평면적으로 표현해내는 특징을 보이며, 부분적인 것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 입체적 탐색기 (8~10세)

「입체적 탐색기는 입체재료를 대부분 입체로 표현하지만 상징적 표현의 단계에서 탈피하지는 못하고 사실적 표현을 탐색하는 단계」¹⁷⁾이다. 앉아 있는 표현이 많은 입체적 표현, 전체적인 것에 대한 관심의 점차적인 증가, 사실표현에 대한 탐색, 팔 움직임 표현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즉, 직립표현이 반 정도로 많아지고 직립표현과 평면적 표현을 이어주는 앉아 있는 표현이 많아진다. 4분의 3정도가 입체적 표현을 하게 되며, 몸통은 모든 아동이 표현하지만 다리의 표현 비율이 전단계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부분의 집합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전체의 덩어리에서 부분으로 표현해 가는 경우도 나타나며, 몸 전체의 비율과 두께가 훨씬 정확해진다. 몸 위에 표현되는 모든 세부의 표현은 평면적 상징기 보다 표현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낮아져 전체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머리의 각 부분과 목, 손, 발의 표현에서 사실표현이 많아지고 팔의 움직임 표현도 갑자기 늘어나며, 다리, 몸통의 움직임도 많아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¹⁸⁾

(4) 입체적 사실기(10~12세)

「입체재료로 대상을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단계」¹⁹⁾이다.

17) 이규선 외 (2000), 전계서, p.126

18) 이규선·김동영·전성수(1998), 전계서, p.239-240

19) 이규선·김동영·전성수(1998), 전계서, p.215

전체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입체적인 형태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직립표현이 대부분이고 평면적 표현은 매우 적은 비율이며, 몸통과 팔, 다리는 대부분의 어린이가 표현한다. 부분 보다 전체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주제를 나타내는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머리의 각 부분과 목, 손, 발의 표현에서 사실표현이 많아져 모두 상징 표현보다 사실 표현의 비율이 높으며, 팔과 다리, 몸통의 움직임 표현이 매우 많아진다.

(5) 공간적 사실기 (12세 이상)

「공간적 사실기는 자신이 주제를 선택하여 표현하고 공간적 관계를 고려하여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로 중학생 이상의 시기를 말한다.»²⁰⁾ 이 시기를 흔히 사춘기라고 하며 신체와 정신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성적으로 성숙하고 가족에게서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하여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그러한 개인적 정체성을 탐색하는데 있어 자기에게 중요한 인물들인 부모나 교사, 동료들의 가치와 관점을 나름대로 자기화하려고 노력한다.

공간적인 관계를 인식하여 표현하며 자신의 표현의도와 재료의 선택과 용구의 사용을 결부시켜 사고할 줄 알게 되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 동안의 무의도적으로 빛는 행위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표현을 하려는 욕구가 강해짐으로써 대상을 보고 그것과 닮게 만들려는 것 뿐 아니라 어떤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상상과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진다.

4. 고학년(5, 6학년)의 일반적인 특징

「고학년 (5, 6학년) 단계는 발달단계상 비판적이며 논리적이고 외계의 사물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며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의도적으로 장시간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²¹⁾ 체력이 좋아지고 의지와 정신력이 강해지며 남녀의 성별

20) 이규선·김동영·전성수(1998), 전제서, p.243

21) 교육부(1996), 초등학교교사용지도서(미술-6), 한국교육개발원.p.7

에 따른 행동경향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표현활동에서도 묘사기술의 차이가 확실히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지도에 있어서는 개인의 표현태도와 특색을 잘 파악하여 비판보다는 잘 하는 점을 찾아서 격려해 줌으로써 자신의 표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표현의도와 실제 표현 사이에서 모순은 느껴 표현활동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아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는 미술관련 용어와 미술사에 대한 지도, 상호 작품 감상 및 평가, 참고작품의 감상, 다양한 재료의 경험과 용구의 활용지도를 함으로써 미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들이 자신의 세계에서 주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도록 하며, 주제에 맞게 재료를 선정하도록 하고 탐구적인 방법으로 표현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성적이며 의도적인 표현에 대한 관심과 격려,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한 적합한 정보의 제공 등은 아동의 창의적인 사고와 미적 감정을 살려 표현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²²⁾ 다음은 이러한 고학년 아동들의 미술적인 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목표를 선정해 놓은 것이다.

<표 3> 고학년의 미술적인 발달 및 교수목표

미술적인 발달	교수목표
1. 소묘능력에 대한 비판력이 증가하면서 재미있고 공감이가는 동기유발과 지도가 없으면 낙담하거나 미술수업에 흥미를 잃는다	1. 어린이들은 묘사를 잘 할 수 있고 각자의 미술작품에서 부분을 표현력있게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 만들기 영역에서 조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묘사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미술사에 좀더 흥미를 보일 것이다.
2. 새롭고 다양한 재료, 용구, 기법 등을 탐색하기 위한 호기심이 늘어난다.	2. 어린이들은 특수한 용구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 : 현광덕(1996), “초등고학년의 미술교육론”, 「미술교육논총」, 제5집, 한국미술교육학회, p.13

22) 김봉권(1998), 미술교육 이렇게 하자VI, 미술공론사, p.13

5. 미술과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각 시대마다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하면서 필요한 시기마다 개정하며 체계화하였다. 1955년부터 제1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1~4학년에는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5·6학년은 6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1) 제6차 미술과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속에서 개정된 것으로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추구」²³⁾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조형의 세계로 창조, 발전시키는 예술의 한 영역」²⁴⁾이라고 규정하고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펴낸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의 미술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조형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조성을 계발하며, 정서를 함양하게 한다.

- ①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애호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②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즐겁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 ③ 여러 가지 재료 및 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르게 한다.
- ④ 미술품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발달단계에 맞게 학습지도 계획을 수립하며 학교나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리고 만들기 부분에서는 실용성보다는 주제표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 영역에 걸쳐 전통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특히 강조하

23) 교육부(1992),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156

24) 상계서, p.155

고 있다.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내용은 <표 4>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적 체험 활동, 표현 활동, 감상 활동」²⁵⁾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미술과 생활, 느낌 나타내기, 상상하여 나타내기, 보고 나타내기, 꾸미기와 만들기, 붓글씨로 나타내기, 작품감상의 7개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표 4> 미술과 지도 영역

활동구분	내 용
미적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과 생활 (생활과의 연관 속에서 미술에 대한 이해가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신설됨)
표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 나타내기 (경험한 것 나타내기와 보고 나타내기는 내용구분이 애매하여 재구성) ◎ 상상하여 나타내기 ◎ 보고 나타내기 ◎ 꾸미기와 만들기 (모양을 생각하여 꾸미기, 환경꾸미기, 쓸모를 생각하여 만들기) ◎ 붓글씨로 나타내기
감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감상 (자연 감상을 미술과 생활에 포함시키고, 서로의 작품·조형품 감상으로 구성)

자료: 새교실(1995), 제6차 새교육과정연수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p.136

25) 상계서, p.155

<표 5> 5, 6학년 내용체계 (제6차 교육 과정)

영역 \ 학년	5학년	6학년
미술과 생활	·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 조형과의 관계 생각하기	
	·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조형물을 찾아 생활과의 관계생각하기	
느낌 나타내기	· 형과 색의 특징이나 아름다움 등을 생각하여 나타내기	
	· 크레파스, 수채물감, 먹, 찰흙 등으로 나타내기	
상상하여 나타내기	· 형과 색의 특징이나 아름다움 등을 생각하여 나타내기	
	· 크레파스, 수채물감, 먹, 찰흙 등으로 나타내기	
보고 나타내기	· 대상의 형과 색의 특징이나 아름다움 등을 생각하여 나타내기	
	· 크레파스, 수채물감, 먹, 찰흙 등으로 나타내기	
꾸미기와 만들기	· 여러 가지 모양과 색의 변화 등을 활용하여 꾸미거나 만들기	
	·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를 활용하여 꾸미거나 만들기	
붓글씨로 나타내기	· 문자의 짜임새를 이해하고, 배자에 유의하여 쓰기	· 점획의 변화를 이해하고, 배자를 유의하여 쓰기
	· 재료 및 용구 사용법 익히기	
작품감상	· 서로의 작품을 보고 특징 찾아보기	
	· 우리 나라 미술품과 다른 나라 미술품의 특징 찾아보기	

자료 : 교육부(1992), 국민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157

위의 표에 나타난 각 영역의 표현지도에 있어서는 충분한 발상지도를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재료 및 용구의 사용에 대한 충분한 지도, 조형요소와 원리의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감상을 병행한 표현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표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제6차 교육과정에 있는 제재별 참고작품을 강기원은 <표 6> 및 <표 7>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표 6>을 보면 찰흙을 이용한 표현이 느낌 나타내기와 보고 나타내기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채색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종류의 찰흙 칼 모양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각, 양각 표현의 부조작품은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5학년 제재별 참고작품 분석

학년	단원 제재	참고작품주제	쪽 수	표현 방법	재료, 용구	참고사항	
5	상상 하여 나타 내기	공룡가족	32	환조	찰흙,유토,나무판, 받침대	군상표현으로 받침과 배경을 나타냄	
		시장풍경			찰흙,나무판,받침대,크레파스,부분 채색		
		중세의 기사	33	구조적 조형	스티로폼판,지점토,유토,종이,종이상자,은박지,털실,압정,단추	자유로운 표현을 강조함	
		옛날옛적			스티로폼판,찰흙,짚,유토,흙,나뭇가지,이쑤시개,종이상자	찰흙과 자연물을 중심재료로 활용함	
	느낌 나타 내기	산책	28	환조	부조 찰흙	부조의 선각, 양각 표현으로 작품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고 사각형틀을 벗어남	
		달리기			찰흙,지점토,유토	철사로 형을 잡고 살을 덧붙임	
		야구			찰흙, 채색		채색을 통하여 마무리의 느낌을 강화시킴
		공기놀이	찰흙	보조재료로 철사와 종이를 도입			
		리본체조	찰흙, 철사, 종이				
		가족소풍	29	부조 찰흙			
		연주		환조 찰흙, 이쑤시개			
	할아버지와 할머니	환조 찰흙,석고판,채색	채색을 통하여 마무리의 느낌을 강화시킴				
	보고 나타 내기	여러 가지 정물	화분	12	환조	찰흙,유토	찰흙칼 5종의 모양을 제시함 조각표현에 발포석고를 이용함
			물뿌리개			찰흙	
			양치컵			비누	
			주전자			찰흙, 유토	
			선풍기			찰흙	
		곰과 코끼리	조각 비누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운동화	운동화 1	13	환조	찰흙, 유토	
	운동화 2		조각 발포석고				
운동화 3	환조 지점토, 구리선						

자료 : 강기원(1998), “조형재료의 체험을 통한 입체표현력 신장 방안”,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28

<표 7> 6학년 제재별 참고작품 분석

학년	단원 제재	참고작품주제	쪽 수	표현 방법	재료, 용구	참고사항
6	상상하여 나타내기	외계인의 나라	32	구조적 조형	나무판, 지점토, 채색, 금박지, 은박지, 이쑤시개, 강통, 스티로폼, 철사, 은박접시, 부직포, 악세사리, 끈, 크리스마스 장식, 눈알단추, 머리핀, 목걸이 구슬	주변재료의 활용을 강조함 재료와 용구의 성질을 알고 사용하기
		우주정거장	33		나무판, 나무도막, 철사, 못, 야쿠르트통, 페트병, 플라스틱 통, 돌멩이, 기계부속품, 금은색스프레이	
		미래의 도시			종이컵, 스티로폼구, 플라스틱물통과 뚜껑, 빨대, 솜, 칩핀, 투명용기, 단추, 목걸이구슬, 스폰지, 금은색스프레이, 포장지, 쿠잉호일 등	
	느낌 나타내기	운동회	6	구조적 조형	지점토, 나무판, 채색, 압핀, 못	학습 목표로 몸의 움직임 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지점토, 철사, 석고 그리고 감상 작품에서 종이 인형을 제시함
		야구			지점토, 나무판, 채색, 압핀, 못	
		유모차	7		피복전선	
		농구			철사, 석고, 나무상자, 압핀, 못	
		음악회			철사, 석고, 하드보드지, 은색스프레이	
	보고 나타내기	내친구 1	14	환조	찰흙	보는 방향을 달리하여 감상하는 방법을 제시함 찰흙을 강통에 붙여 큰 덩어리, 대강의 모습, 부분 다듬기의 두상 제작 순서를 제시함
		내친구 2			찰흙	
친구의 얼굴		15	조각	발포석고		

자료 : 강기원(1998), “조형재료의 체험을 통한 입체표현력 신장 방안”,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29

6학년에서는 재료와 용구의 성질을 생각하며 사용하도록 하였고 주변의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인체의 움직임을 여러 가지 재료로 특징있게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보는 방향에 따른 감상법을 제시하고 있고 깡통에 찰흙을 붙여 두상을 제작하는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2)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을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 조형언어를 통하여 창조, 발전시켜 나가는 예술의 한 영역」²⁶⁾이라고 규정하고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분야로 보았다. 따라서 미술교과교육은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아울러 미술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²⁷⁾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이 아니라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미술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 (1)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 (2)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3)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 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학년을 말한다. 미술교과의 총괄 목표는 제5차, 제6차 미술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괄 목표와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1998년에 교육부에서 발행한 초등

26) 이규선 외(2000), 전계서, p.336

27) 이규선 외(2000), 전계서, p.336

학교 교육과정 해설(V)을 살펴보면 미술활동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표현 및 감상능력, 창의성, 심미적인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인 면들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미술활동에서의 심동적인 면인 표현 및 감상능력, 인지적인 면인 창의성, 정의적인 면인 심미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미술 교과 내용은 교과 특성상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나누고 있다. <표8>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 보면 미적 체험은 자연물과 조형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애호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표현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주제를 다양하게 나타내도록 하여 창의적인 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초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감상은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보는 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미술품의 특징을 이해하며 존중하도록 하였다.

<표 8> 5,6학년 내용체계(제7차 교육 과정)

영역	
미적체험	(1) 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 이해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특징 이해하기
	(2) 자연과 조형물의 관계 이해 생활에서 자연과 조형물의 특징을 발견하고, 그 관계 이해하기
표현	(1) 주제표현 주제의 특징을 생각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기
	(2) 표현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생각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기
	(3) 조형요소와 원리 조형요소와 원리를 알고 다양하게 표현하기
	(4) 표현재료와 용구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탐색하여 표현하기
감상	(1) 서로의 작품 감상 작품의 표현 특징을 찾아 설명하기
	(2) 미술품 감상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품의 표현 특징을 찾아 설명하기

자료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인쇄공업조합, p.101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보면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흥미와 발달 단계 및 개인차를 고려하여 지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도 재구성 하도록 하고 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와 방법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으며 표현과 감상 영역의 연계지도, 다양한 발상지도, 표현 재료와 용구의 활용에 대한 충분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 학습 방법은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업의 계획과 실행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Ⅲ. 입체 표현 활동에 대한 실태분석

미술교과는 교육이 지향하는 전인적인 인간의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과는 어긋나게 쉽고 소홀히 다루어져도 그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이에 도내의 교사와 아동에 대한 설문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당면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1. 연구 대상 및 자료 분석 방법

1) 연구 대상자의 특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9>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교사)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담당학년	5학년		101	49.8
	6학년		102	50.2
교직 경력	5년 이하		60	29.6
	6년~15년		64	31.5
	16년 이상		79	38.9
성 별	남		64	31.5
	여		139	68.5
전담시 희망과목 계	없음		97	48.7
	있음	미술	29	14.3
		체육	27	13.3
		음악	14	6.9
		자연	13	6.4
		영어	13	6.4
		기타	10	4.9
계		203	100.0	

먼저 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담당학년은 5학년 49.8%, 6학년 50.2%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교직경력은 16년 이상이 38.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6~15년 31.5%, 5년 이하 29.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 교사가 68.5%로 남자 교사 31.5%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전담교과 희망여부별로는 전담을 희망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가 각각 51.3%, 48.7%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전담교과목으로는 미술교과와 체육교과를 희망하는 교사가 각각 14.3%, 1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학년은 6학년이 77.1%로 5학년 22.9%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성별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51.2%, 48.8%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10>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아동)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학년	5학년	83	22.9
	6학년	180	77.1
성별	남	186	51.2
	여	177	48.8
계		363	100.0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²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교사의 교직경력과 학생의 성별에 따라 입체표현 활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²⁹⁾을 실시하였다.

28)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쉽게 통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통계전용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기술통계에서 복잡한 통계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며, 기타 자료의 이용에 있어서도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성된 자료까지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9) 일반적인 경향성 분석에 사용하는 것으로 명목변인들간의 상호 관련성 여부에 관한 검증을 행하는 통계기법이다.

2. 설문결과 분석

본 연구는 조소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현장의 상황을 학교시설의 측면, 교사의 실태, 아동의 실태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다. 학교시설은 미술실의 유무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찰흙을 다루는 데 필요한 용구의 비치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교사와 아동의 실태는 조사내용을 미술교과에 대한 인식, 교육과정의 재구성, 재료의 준비 및 활용실태, 주제의 구상 및 표현과 감상지도 실태, 시청각자료의 활용실태, 교과전담제 운영 실태, 교사들의 연수실태로 분류하여 조사·분석하였다.

1) 학교 시설 현황에 대한 분석

학교에 미술실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1> 미술실의 유무

구 분	있다	없다	있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기타	계
계	33 (16.3)	151 (74.4)	15 (7.4)	4 (2.0)	203 (100.0)

전체적으로 학교에 미술실이 없는 학교가 74.4%로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학교에 미술실이 있는 학교는 16.3%로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에 갖추어진 용구를 조소용구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2> 학교에 갖추어진 용구

구 분	없다		있다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찰흙판	58	28.6	145	71.4
찰흙 보관통	192	94.6	11	5.4
조각도	97	47.8	106	52.2
작품진열대	108	53.2	95	46.8
주걱	164	80.8	39	19.2
펜치	189	93.1	14	6.9
가위	86	42.4	117	57.6
고무 그릇	199	98.0	4	2.0
나무판	196	96.6	7	3.4
공갈대	199	98.0	4	2.0
계	203	100.0	203	100.0

학교에 갖추고 있는 용구는 71.4%를 차지하는 찰흙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위 57.6%, 조각도 52.2%, 작품 진열대 46.8% 순으로 많이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미술실과 기본적인 용구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미술교육을 위한 환경적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입체표현 활동 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실태 분석

(1) 미술교과에 대한 견해

교사들이 미술교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3>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

구 분	관심이 많고 좋아한다	관심은 많지 않지만 좋아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고 좋아하지 않는다	계	χ^2 (df)	p
5년 이하	34 (56.7)	17 (28.3)	9 (15.0)	60 (29.6)	16.16** (4)	0.003
6년~15년	32 (50.0)	21 (32.8)	11 (17.2)	64 (31.5)		
16년 이상	32 (40.5)	44 (55.7)	3 (3.8)	79 (38.9)		
계	98 (48.3)	82 (40.4)	23 (11.3)	203 (100.0)		

** p<.01 30)

전체적으로 교사들은 미술교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교사가 4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심은 많으나 좋아하지 않는 교사 40.4%,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 않는 교사 11.3%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미술교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교사가 많았고,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관심은 많지만 좋아하지 않는 교사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chi^2=16.16$, p<.01)

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주로 지도하는 미술영역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30) χ^2 은 기대빈도와 실제빈도간의 차이에 의해서 계산되는 검증 통계량을 말하고, df는 자유도, p는 유의확률이라 한다. p<0.01이면 99% 수준에서 의미있는 값이라 해석된다.

<표 14> 영역별 지도 상황

구 분	회화	조소	디자인	서예	골고루 지도	계	χ^2 (df)	p
5년 이하	23 (38.3)	3 (5.0)	3 (5.0)	2 (3.3)	29 (48.3)	60 (29.6)	23.00** (4)	0.003
6년~15년	36 (56.3)	4 (6.3)	1 (1.6)	2 (3.1)	21 (32.8)	64 (31.5)		
16년 이상	18 (22.8)	2 (2.5)	2 (2.5)	8 (10.1)	49 (62.0)	79 (38.9)		
계	77 (37.9)	9 (4.4)	6 (3.0)	12 (5.9)	99 (48.8)	203 (100.0)		

** p<.01

전체적으로 교사들은 미술의 전 영역을 골고루 지도하는 교사가 4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회화를 주로 지도하는 교사도 37.9%로 많았으며, 조소와 디자인, 서예영역을 주로 지도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4.4%, 3.0%, 5.9%로 비교적 적었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경력이 5년 이하와 16년 이상인 교사는 미술영역을 골고루 지도하는 교사 많은 반면에 경력이 6~15년인 교사는 회화영역을 많이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chi^2=23.00$, p<.01)

교사들이 현재 담임하고 있는 아동의 미술발달단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5> 아동의 미술발달단계의 특성 파악 여부

구 분	그렇다	모른다	대강 알고 있다	몰라도 지도에는 상관이 없다	계	χ^2 (df)	p
5년 이하	6 (10.0)	10 (16.7)	44 (73.3)	-	60 (29.6)	8.54 (6)	0.201
6년~15년	5 (7.8)	11 (17.2)	45 (70.3)	3 (4.7)	64 (31.5)		
16년 이상	5 (6.3)	6 (7.6)	62 (78.5)	6 (7.6)	79 (38.9)		
계	16 (7.9)	27 (13.3)	151 (74.4)	9 (4.4)	203 (100.0)		

전체적으로 현재 담임하고 있는 아동의 미술발달단계의 특성을 대강 알고 있는 교사가 74.4%로 가장 많았고, 아동의 미술발달단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는

7.9%로 비교적 적었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도 큰 차이없이 아동의 미술발달단계의 특성을 대강 알고 있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교사들이 대부분 미술교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과지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어느 특정 영역을 주로 지도한다는 교사가 많은 것은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발달단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는 각 학년별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미술적 능력의 발달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에 맞게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 학년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교사들의 정확한 연구와 인식이 필요하다.

(2)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견해

교사들은 미술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6> 미술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구 분	반드시 재구성해야 한다	굳이 재구성 할 필요가 없다	기타	계	χ^2 (df)	p
5년 이하	36 (60.0)	21 (35.0)	3 (5.0)	60 (29.6)	4.61 (4)	0.329
6년~15년	47 (73.4)	13 (20.3)	4 (6.3)	64 (31.5)		
16년 이상	47 (59.5)	28 (35.4)	4 (5.1)	79 (38.9)		
계	130 (64.0)	62 (30.5)	11 (5.4)	203 (100.0)		

전체적으로 미술과 교육과정을 반드시 학교별로 실정을 고려하여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64.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굳이 재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30.5%로 비교적 많았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교직경력 6~15년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미술과 교육과정을 반드시 학교별로 실정을 고려하여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기초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교육내용과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교사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사용 지도서 안내대로 한다 25.1%, 교과서 순서대로 한다 17.7%, 교육용 도서에서 제공되는 연간계획표에 따라 편성한다 17.2%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교직경력이 5년 이하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과정을 교육내용과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교사가 많았고, 교직경력이 6~15년인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교육과정을 교과서 순서대로 하는 교사가 많았다. 또한 교사의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교사용 지도서 안내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사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chi^2=19.55$, $p<.05$)

<표 17> 교육과정 재구성 실태

구 분	교과서 순서대로 한다	교육내용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교사용 지도서 안내대로 한다	교육도서에서 제공하는 연간 계획표에 따라 편성한다	기타	계	χ^2 (df)	p
5년 이하	15 (25.0)	32 (53.3)	7 (11.7)	5 (8.3)	1 (1.7)	60 (29.6)	19.55* (8)	0.012
6년~15년	12 (48.8)	21 (32.8)	18 (28.1)	13 (20.3)	-	64 (31.5)		
16년 이상	9 (11.4)	26 (32.9)	26 (32.9)	17 (21.5)	1 (1.3)	79 (38.9)		
계	36 (17.7)	79 (38.9)	51 (25.1)	35 (17.2)	2 (1.0)	203 (100.0)		

* $p<.05$

연간 입체 표현 활동의 지도 횟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입체 표현 활동을 10~12회 지도한 교사가 5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3~15회 29.1%, 16~18회 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19~21회 지도한 교사는 1.0%로 매우 적었다. 대체적으로 교육과정상에 설정되어 있는 시수대로 입체 표현 활동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연간 입체 표현 활동 지도 횟수

구 분	10~12회	13~15회	16~18회	19~21회	계	χ^2 (df)	p
5년 이하	42 (70.0)	11 (18.3)	7 (11.7)	-	60 (29.6)	12.07 (6)	0.060
6년~15년	31 (48.4)	24 (37.5)	9 (14.1)	-	64 (31.5)		
16년 이상	38 (48.1)	24 (30.4)	15 (19.0)	2 (2.5)	79 (38.9)		
계	111 (54.7)	59 (29.1)	31 (15.3)	2 (1.0)	203 (1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현실성있는 재구성 보다는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더욱 적극적인 교육과정의 재구성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 학교, 교사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재구성하도록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미술과는 지역적 여건 및 아동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꼭 필요한 교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지역 및 학교여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재구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3) 재료의 준비에 관한 실태

미술시간에 필요한 재료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 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19>와 같다. 전체적으로 재료는 교과서에 제시된 재료와 생활주변의 재료를 골고루 선정하는 교사가 6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교사용 지도서의 준비물을 보고 선정하는 교사 20.2%, 교과서를 참고하여 그대로 선정하는 교사 18.7%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교직경력 6~15년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재료 선정을 교사용 지도서의 준비물을 보고 많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9> 자료 선정 방법

구 분	교과서를 참 고하여 그대 로 선정한다	교과서에 제 된 자료와 재 활주변의 재 료를 골고루 정한다	교사용 지도 서의 준비물 을 보고 선 정한다	계	χ^2 (df)	p
5년 이하	9 (15.0)	39 (65.0)	12 (20.0)	60 (29.6)	6.22 (4)	0.183
6년~15년	14 (21.9)	32 (50.0)	18 (28.1)	64 (31.5)		
16년 이상	15 (19.0)	53 (67.1)	11 (13.9)	79 (38.9)		
계	38 (18.7)	124 (61.1)	41 (20.2)	203 (100.0)		

교사들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아동들로 하여금 어떻게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주재료만 제공하고 아동 각자가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하는 교사가 6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의 학교에서 학습준비물로만 제공하도록 하는 교사가 34.0%로 비교적 많았으며, 교과서를 보고 각자 알아서 준비하도록 하는 교사는 0.5%로 매우 적었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거의 학교에서 학습준비물로만 제공하도록 하였고,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주재료만 제공하고 아동 각자가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하였으나 교직경력별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0> 자료 준비 방법

구 분	거의 학교에서 학습준비물로 만 제공한다	주재료만 제공 하고 아동 각 자가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한 다	교과서를 보고 각자 알아서 준비하도록 한 다	계	χ^2 (df)	p
5년 이하	23 (38.3)	37 (61.7)	-	60 (29.6)	2.44 (4)	0.655
6년~15년	22 (34.4)	42 (65.6)	-	64 (31.5)		
16년 이상	24 (30.4)	54 (68.4)	1 (1.3)	79 (38.9)		
계	69 (34.0)	133 (65.5)	1 (0.5)	203 (100.0)		

권우택의 조사³¹⁾에 따르면 고학년이 될수록 교과서 위주의 재료를 사용한 수업에 흥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과서 이외의 새로운 재료로 작품을 만들 때 아동의 흥미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재료를 선정할 때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재료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아동들에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결과에서 보면 교과서에 의존하는 정도가 절반 가까이 되고 있어 재료의 선택에 대한 보다 세밀한 교사의 안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재료의 활용실태

수업 중에 활용해 본 재료를 살펴본 결과는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1> 수업에 활용해 본 재료

구 분	없다		있다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찰흙	12	5.9	191	94.1
발포석고	191	94.1	12	5.9
비누	147	72.4	56	27.6
종이죽	89	43.8	114	56.2
지점토	11	5.4	192	94.6
유토	191	94.1	12	5.9
석고분	199	98.0	4	2.0
목재	176	86.7	27	13.3
우드락	142	70.0	61	30.0
계	203	100.0	203	100.0

대부분의 교사가 찰흙과 지점토를 각각 94.1%, 94.6%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종이죽 56.2%, 비누 27.6%, 우드락 30.0% 순으로 많이 활용하였다. 그러나 발포석고와 유토, 석고분을 활용해본 교사는 각각 5.9%, 2.0%로 매우 적었다.

여러 가지 재료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재료를 살펴본 결과는 <표 22>와 같이 지점토와 찰흙을 활용한 교사가 각각 44.9%, 40.4%로 많았으며, 종이죽과 물감, 도화지, 색종이, 한지를 활용한 교사는 각각 1.1%, 3.4%, 1.7%, 1.1%로 매우 적었다.

31) 권우택(1996), "국민학교에서 조소의 재료와 용구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p.55-56

<표 22>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재료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종이 죽	2	1.1
물 감	6	3.4
지점토	80	44.9
찰흙	72	40.4
도화지	13	7.3
색종이	3	1.7
한 지	2	1.1
계	178	100.0

찰흙을 사용할 때 다른 재료를 같이 사용해 본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3> 찰흙 사용 시 다른 재료를 같이 사용해 본 경험

구 분	있다	없다	계	χ^2 (df)	p
5년 이하	53 (88.3)	7 (11.7)	60 (29.6)	0.76 (2)	0.684
6년~15년	57 (89.1)	7 (10.9)	64 (31.5)		
16년 이상	73 (92.4)	6 (7.6)	79 (38.9)		
계	183 (90.1)	20 (9.9)	203 (100.0)		

전체적으로 찰흙 사용 시 다른 재료를 같이 사용해 본 교사가 90.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찰흙 사용 시 다른 재료를 같이 사용해 본 경험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재료를 같이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활용한 재료를 살펴본 결과는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철사를 63.9%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점토 13.7%, 고무 찰흙 11.5% 순으로 많이 활용하였고, 이쑤시개와 신문지, 골판지, 노끈, 털실, 나무, 별, 강통을 활용한 교사는 매우 적었다.

<표 24> 찰흙과 병행하여 활용한 재료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고무 찰흙	21	11.5
철 사	117	63.9
이쑤시개	3	1.6
신문지, 골판지	1	0.5
지 점 토	25	13.7
노 끈	4	2.2
털 실	5	2.7
나 무	4	2.2
병, 강통	3	1.6
계	183	100

이상에서 살펴보면 가소성의 재료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재료의 다양화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선정과 활용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전통적인 조소재료 이외의 다양한 많은 재료를 도입한 교육은 「미적비평능력의 신장, 조형성 연구, 환경교육, 새로운 재료의 발견과 체험」³²⁾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새로운 물질을 이용하여 붙이고 만들어 가는 활동을 통하여 조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한 물체가 다른 위치에 사용됨으로써 생기는 이미지의 변화에서 색다른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물건을 이용하는 정크(Junk)조각과 같은 작품제작활동은 물질에 대한 소중함을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봄으로써 일상의 물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새로운 재료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현대의 미술흐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재료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주제 구상 및 재료 선정에 관한 지도실태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재료선정과 준비에 대한 지도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5>에 나타난 바와 같다.

32) 서인숙(1996), “오브제를 이용한 미술수업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4권, 한국미술교육학회, p.295

<표 25> 주제와 자료에 대한 구상 및 준비에 대한 지도

구 분	전 시간 차시 예고 할 때	본시 준비 시간에	교사가 준비 하여 제시	기타	계	χ^2 (df)	p
5년 이하	48 (80.0)	6 (10.0)	4 (6.7)	2 (3.3)	60 (29.6)	10.44 (6)	0.107
6년~15년	48 (75.0)	13 (20.3)	1 (1.6)	2 (3.1)	64 (31.5)		
16년 이상	52 (65.8)	17 (21.5)	2 (2.5)	8 (10.1)	79 (38.9)		
계	148 (72.9)	36 (17.7)	7 (3.4)	12 (5.9)	203 (100.0)		

전체적으로 주제에 대한 자료의 구상과 준비는 전 시간 차시예고 할 때 하는 교사가 7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본시 준비 시간에 하는 교사는 17.7%로 나타났으며, 교사가 준비하여 제시하는 경우는 3.4%로 매우 적었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주제에 대한 자료의 구상과 준비는 전 시간 차시예고 할 때 하는 교사가 많았고,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본시 준비 시간에 하는 교사가 많았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적인 표현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미리 주제와 자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활동은 고학년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 각자의 계획에 따라 표현하고 수정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수업과정에서 시작활동에 해당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6) 표현 활동 지도실태

입체 표현 활동 시간을 운영할 때 교사들의 지도 실태를 보면 <표 2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표현 활동 시간에 지도하는 방법으로는 아동의 개성적인 표현활동에 전적으로 맡겨둔다고 대답한 교사가 5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동의 표현단계를 살피면서 단계별로 적절히 지도한다고 대답한 교사가 34.5%,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만 지도한다는 대답이 14.3%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표현 활동 시간에는 표현단계를 살피면서 단계별로 적절히 지도한다고 대답한 교사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6> 표현 활동 시간 지도 방법

구 분	아동의 개성 적인 표현활동에 전적으로 맡겨둔다	표현 단계를 살피면서 적절히 지도한다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만 지도한다	기타	계	χ^2 (df)	p
5년 이하	35 (58.3)	14 (23.3)	11 (18.3)	-	60 (29.6)	11.86 (6)	0.065
6년~15년	28 (43.8)	22 (34.4)	13 (20.3)	1 (1.6)	64 (31.5)		
16년 이상	39 (49.4)	34 (43.0)	5 (6.3)	1 (1.3)	79 (38.9)		
계	102 (50.2)	70 (34.5)	29 (14.3)	2 (1.0)	203 (100.0)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표현결과에 따라 미술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자칫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학년은 사실표현의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표현해 내지 못했을 때 좌절을 맛보게 되는데 교사는 이에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 표현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느끼게 하여 미술에 대한 흥미와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는데 부족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표현지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7) 감상 지도 실태

작품이 완성된 후 자신이 제작의도와 표현결과를 생각하며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작품의 완성 후 제작의도와 표현결과를 생각하며 감상하는 시간을 시간이 있을 때만 한다는 교사가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시간의 부족으로 거의 감상시간을 갖지 않는 교사도 32.0%로 비교적 많았으며, 반드시 감상하는 교사는 13.3%로 그다지 많지 않았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제작의도와 표현결과를 생각하는 감상시간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교사가 많았으며,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반드시 감상시간을 마련하는 교사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7> 작품의 완성 후 감상하는 시간 마련 정도

구 분	반드시 감상한다	거의 감상 시간을 갖지 않는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만 한다	계	χ^2 (df)	p
5년 이하	10 (16.7)	21 (35.0)	29 (48.3)	60 (29.6)	3.08 (4)	0.544
6년~15년	10 (15.6)	18 (28.1)	36 (56.3)	64 (31.5)		
16년 이상	7 (8.9)	26 (32.9)	46 (58.2)	79 (38.9)		
계	27 (13.3)	65 (32.0)	111 (54.7)	203 (100.0)		

그리고 미술시간에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8> 완성된 작품의 전시 여부

구 분	반드시 전시한다	그냥 집으로 보낸다	기타	계	χ^2 (df)	p
5년 이하	56 (93.3)	3 (5.0)	1 (1.7)	60 (29.6)	4.67 (4)	0.323
6년~15년	53 (82.8)	4 (6.3)	7 (10.9)	64 (31.5)		
16년 이상	69 (87.3)	5 (6.3)	5 (6.3)	79 (38.9)		
계	178 (87.7)	12 (5.9)	13 (6.4)	203 (100.0)		

전체적으로 완성된 작품을 반드시 전시하는 경우가 87.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전시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보내는 교사는 5.9%로 비교적 적었다. 교사의 교직경력 별로는 교직경력이 5년 이하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완성된 작품을 반드시 전시한다는 대답이 많았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29>와 같이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시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관의 어려움 33.3%, 시간 내 완성이 안되어서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전시하지 않는 이유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장소의 부족	6	50.0
보관의 어려움	4	33.3
시간 내 완성이 안되어서	2	16.7
계	12	100.0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현재 학교는 아동들에게 작품계획과 학습결과물을 연계시켜 감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표현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매우 소홀하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이는 감상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1년 앞둔 현 시점에서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단위 수업시간이 부족하여 감상시간을 갖지 못하는 문제는 학기초 교육과정의 재구성 작업에서 충분한 시간을 편성한다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소의 부족으로 아동들의 작품을 전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보다 계획적인 교육시설 투자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교육행정가들의 교육현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근거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설적 여건의 확충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풍부한 시지각적 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개성적인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상시간을 적절히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교사들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8) 시청각 자료의 활용 실태

교사들이 미술과 수업시간에 시청각 자료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수업시간에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교사가 90.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혀 이용하지 않는 교사는 9.8%로 비교적 적었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수업시간에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교사가 많았고,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교사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chi^2=14.72, p<.01$)

<표 30> 시청각 자료의 이용 정도

구 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가끔 이용한다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	계	χ^2 (df)	p
5년 이하	12 (20.0)	39 (65.0)	9 (15.0)	60 (29.6)	14.72** (4)	0.005
6년~15년	13 (20.3)	42 (65.6)	9 (14.1)	64 (31.5)		
16년 이상	32 (40.5)	45 (57.0)	2 (2.5)	79 (38.9)		
계	57 (28.1)	126 (62.1)	20 (9.8)	203 (100.0)		

** p<.01

교사들이 조소 지도에서 사용하는 시청각 자료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1> 조소 지도에서 사용하는 시청각 자료

구 분	작품집, 사진	OHP	인터넷 자료	학습용 CD	기타	전체	χ^2 (df)	p
5년 이하	19 (37.3)	3 (5.9)	6 (11.8)	22 (43.1)	1 (1.0)	51 (27.9)	9.58 (8)	0.296
6년~15년	26 (47.3)	3 (5.5)	2 (3.6)	23 (41.8)	1 (1.8)	55 (30.1)		
16년 이상	21 (27.3)	3 (3.9)	5 (6.5)	47 (61.0)	1 (1.3)	77 (42.1)		
계	66 (36.1)	9 (4.9)	13 (7.1)	92 (50.3)	3 (1.6)	183 (100.0)		

전체적으로 조소 지도에 학습용 CD를 사용하는 교사가 5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작품집과 사진 36.1%, 인터넷 자료 7.1%, OHP 4.9% 순으로 사용하였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교직경력이 5년 이하와 16년 이상인 교사는 조소 지도에 학습용 CD를 가장 많이 사용한 반면에 교직경력이 6~15년인 교사는 작품집과 사진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32>과 같이 자료의 부족과 자료준비 시간의 부족 때문에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교사가 각각 40.0%로 많았다.

<표 32>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자료의 부족	8	40.0
기자재의 부족	2	10.0
자료준비 시간의 부족	8	40.0
기 타	2	10.0
계	20	100.0

이상의 결과는 아동들에게 작품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유로 나타난 자료의 부족이나 자료 준비 시간의 부족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마련과 적절한 비치 방안을 찾아서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교과전담제 운영의 실태

현재 학교에서 전담교사가 담당하는 교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체육교과를 전담교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4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술과목을 전담교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5.6%로 비교적 많았으며, 실과와 자연, 음악을 전담한다는 응답은 각각 3.4%, 5.4%, 1.5%로 비교적 적었다.

<표 33> 전담제가 운영되는 교과

구 분	미술	실과	체육	자연	음악	영어	계
계	52 (25.6)	7 (3.4)	97 (47.8)	11 (5.4)	3 (1.5)	33 (16.3)	203 (100.0)

현재 미술교과를 전담하고 있는 교사 상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34>와 같이 업무가 많아 바쁜 교사를 미술전담교사로 하고 있는 학교가 6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술에 관심이 있는 교사 9.6%, 나이가 많은 교사 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미술 교과를 전담하고 있는 교사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업무가 많아 바쁜 선생님	32	61.5
미술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	5	9.6
나이가 많은 선생님	3	5.8
기 타	12	23.1
계	52	100.0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과 전담제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살펴본 결과는 <표 3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5> 교과전담제에 대한 생각

구 분	미술교과의 특성을 살려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	미술교과에 관심있는 교사로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개선할 필요는 없다.	잘 모르겠다	계	χ^2 (df)	p
5년 이하	1 (1.7)	38 (63.3)	21 (35.0)	-	60 (29.6)	8.41 (6)	0.210
6년~15년	2 (3.1)	49 (76.6)	11 (17.2)	2 (3.1)	64 (31.5)		
16년 이상	3 (3.8)	50 (63.3)	22 (27.8)	4 (5.1)	79 (38.9)		
계	6 (3.0)	137 (67.5)	54 (26.6)	6 (3.0)	203 (100.0)		

전체적으로 미술교과에 관심이 있는 교사를 전담교사로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사가 67.5%로 가장 많았고, 미술교과의 특성을 살려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3.0%로 매우 적었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교직경력이 6~15년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 전담제는 교과특성을 살려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술교과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전반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요교과는 소수 몇 개의 과목으로 인정되고 있고 미술교과는 그 특수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는 교과특성의 중요성을 구분해 놓는 이러한 교육풍토를 변화시켜야 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교과에 대한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술에 관심이 있는 교사를 전담교사로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방안을 찾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0) 교사 연수 실태

새롭게 제시되는 미술 교육 이론이나 교수법을 접해본 경험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6> 새로운 미술 교육 이론이나 교수법을 접해본 경험의 유무

구 분	있다	없다	계	χ^2 (df)	p
5년 이하	9 (15.0)	51 (85.0)	60 (29.6)	3.87 (2)	0.145
6년~15년	15 (23.4)	49 (76.6)	64 (31.5)		
16년 이상	9 (11.4)	70 (88.6)	79 (38.9)		
계	33 (16.3)	170 (83.7)	203 (100.0)		

전체적으로 새롭게 제시되는 미술 교육 이론이나 교수법을 접해본 경험이 없는 교사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접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16.3%로 그다지 많지 않았다. 교사의 교직 경력별로도 커다란 차이 없이 새롭게 제시되는 미술 교육 이론이나 교수법을 접해 본 경험이 없는 교사가 많았다.

새롭게 제시되는 미술 교육 이론이나 교수법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7> 새로운 이론을 알게 된 방법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교원연수의 기회를 통하여	8	24.2
미술 교육 잡지를 통하여	4	12.1
교육 방송을 통하여	1	3.0
각종 교육잡지와 간행물을 통하여	16	48.5
기 타	4	12.1
계	33	100.0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교육잡지와 간행물을 통해 새로운 미술 교육 이론이나 교수법을 접해본 교사가 4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원연수의 기회를 통하여 24.2%, 미술교육 잡지를 통하여 12.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조형요소와 원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교사들이 어떻게 느

끼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8> 조형요소 및 원리의 지도에 대한 생각

구 분	지도하기 쉽다	지도하기 어렵다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계	χ^2 (df)	p
5년 이하	2 (3.3)	58 (96.7)	-	-	60 (29.6)	6.72 (6)	0.348
6년~15년	6 (9.4)	54 (84.4)	3 (4.7)	1 (1.6)	64 (31.5)		
16년 이상	3 (3.8)	72 (91.1)	3 (3.8)	1 (1.3)	79 (38.9)		
계	11 (5.4)	184 (90.6)	6 (3.0)	2 (1.0)	203 (100.0)		

전체적으로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조형 요소 및 원리를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9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지도하기 쉽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5.4%로 매우 적었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교직경력이 5년 이하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아동들에게 조형원리를 지도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처럼 교사들은 대체로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조형요소와 원리를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체 표현 지도에 있어서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는 <표 3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9> 입체 표현 지도 시 느끼는 어려운 점

구 분	능 렷 이 부족하다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교수 자료가 부족하다	아동의 수 용 능 렷 이 부족하다	미술 교육 환 경 이 나쁘다	기타	계	χ^2 (df)	p
5년 이하	16 (26.7)	27 (45.0)	8 (13.3)	5 (8.3)	4 (6.7)	-	60 (29.6)	10.61 (10)	0.389
6년~15년	15 (23.4)	31 (48.4)	7 (10.9)	7 (10.9)	4 (6.3)	-	64 (31.5)		
16년 이상	12 (15.2)	49 (62.0)	6 (7.6)	3 (3.8)	8 (10.1)	1 (1.3)	79 (38.9)		
계	43 (21.2)	107 (52.7)	21 (10.3)	15 (7.4)	16 (7.9)	1 (0.5)	203 (100.0)		

전체적으로 입체 표현 지도 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능력이 부족하다 21.2%, 교수자료가 부족

하다 10.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들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미술교육 환경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각각 7.4%, 7.9%로 비교적 적었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능력과 교수자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많았고,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많았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술 교과 지도를 위한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4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미술 교과 지도를 위한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91.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8.9%로 비교적 적었다. 교사의 교직 경력별로도 큰 차이 없이 미술 교과 지도를 위한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40> 미술과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구 분	꼭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계	χ^2 (df)	p
5년 이하	57 (95.0)	3 (5.0)	60 (29.6)	2.60 (2)	0.272
6년~15년	59 (92.2)	5 (7.8)	64 (31.5)		
16년 이상	69 (87.3)	10 (12.7)	79 (38.9)		
계	185 (91.1)	18 (8.9)	203 (100.0)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경우 필요한 연수의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1>과 같이 방학중 1~2주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7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담 교사의 1년 이상의 연수 16.8%, 주 1회 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적당한 연수기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방학 중 1~2주	132	71.4
주 1회	16	8.6
전담교사의 1년 이상의 연수	31	16.8
기 타	6	3.2
계	185	100.0

교사들은 연수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지 살펴

본 결과는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연수는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4.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각종 연구회의 활동에 의해서 28.1%, 교육청의 일괄적인 연수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 16.3%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연수는 교육청의 일괄적인 연수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많았고, 교직경력이 16년 이상인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각종 연구회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 연수의 형태

구 분	교육청의 일괄적인 연수 계획에 의해서	연구기관, 교육기관에 의해서	각종 연구회의 활동에 의해서	기타	계	χ^2 (df)	p
5년 이하	12 (20.0)	32 (53.3)	15 (25.0)	1 (1.7)	60 (29.6)	2.15 (6)	0.905
6년~15년	10 (15.6)	37 (57.8)	16 (25.0)	1 (1.6)	64 (31.5)		
16년 이상	11 (13.9)	41 (51.9)	26 (32.9)	1 (1.3)	79 (38.9)		
계	33 (16.3)	110 (54.2)	57 (28.1)	3 (1.5)	203 (100.0)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가 없고 수업의 효과는 교사의 수업기술에 달려 있는데」³³⁾ 이런 전문지식의 부족을 느끼는 상황은 미술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이루어내는데 큰 장애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은 미술과목에 대한 교사의 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하는 것도 교사의 몫이고, 미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력을 쌓는 것도 역시 교사의 몫이다. 교사들의 정확한 인식과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당국에서도 현장교사의 요구를 알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여 미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함께 힘써야 하겠다.

33) 변영계(2000), 수업장학, 학지사, p.13

3) 입체 표현 활동에 대한 아동의 실태 분석

(1) 미술교과에 대한 인식

아동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살펴본 결과는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육 과목을 좋아하는 아동들이 2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학 15.4%, 미술 10.7%, 사회와 영어 9.9% 순으로 좋아하였다.

<표 43> 좋아하는 과목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없다	6	1.7
체육	93	25.6
자연	27	7.4
미술	39	10.7
수학	56	15.4
음악	31	8.5
사회	34	9.4
실과	10	2.8
국어	26	7.2
영어	36	9.9
과학	2	0.6
도덕	3	0.8
계	363	100

미술과 학습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을 살펴본 결과는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4> 가장 좋아하는 영역

구 분	회화	조소	꾸미기, 만들기	서예	감상	계	χ^2 (df)	p
남	8 (4.3)	26 (14.0)	113 (60.8)	12 (6.5)	27 (14.5)	186 (51.2)	6.93 (4)	0.140
여	17 (9.6)	15 (8.5)	108 (61.0)	15 (8.5)	22 (12.4)	177 (48.8)		
계	25 (6.9)	41 (11.3)	221 (60.9)	27 (7.4)	49 (13.5)	363 (100.0)		

전체적으로 꾸미기와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동이 6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상 13.5%, 조소 11.3%, 서예 7.4%, 회화 6.9% 순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로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조소 영역을 좋아하였고, 여자 아동은

남자 아동보다 회화를 좋아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아동들이 미술시간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때를 살펴본 결과는 <표 4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무엇을 표현할까 생각하는 단계를 어려워하는 아동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현하는 단계 28.9%, 스케치하는 단계 17.9% 순으로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로는 남자 아동은 여자 아동보다 표현하는 단계를 어려워하는 반면에 여자 아동은 남자 아동보다 구상하는 단계를 어려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chi^2=16.18, p<.01$)

<표 45> 미술시간 중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

구 분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	무엇을 표현할까 생각하는 단계	스케치하는 단계	표현하는 단계	감상하는 단계	계	χ^2 (df)	p
남	17 (9.1)	60 (32.3)	37 (19.9)	56 (30.1)	16 (8.6)	186 (51.2)	16.18** (5)	0.006
여	4 (2.3)	86 (48.6)	28 (15.8)	49 (27.7)	10 (5.6)	177 (48.8)		
계	21 (5.8)	146 (40.2)	65 (17.9)	105 (28.9)	26 (7.2)	363 (100.0)		

** p<.01

이런 아동들의 어려움은 수업활동에 교사들의 충분한 자료의 제시와 함께 아동의 경험과 결부시켜 교사가 설명해 줌으로써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학년의 발달특성에 맞게 용구와 재료의 활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표현에 대한 어려움은 줄어들 것이고 미술에 대한 흥미도 더 높아질 것이다.

(2) 입체 표현 활동에 대한 인식

입체로 나타내기 활동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입체 표현 활동은 작품을 만드는 것은 재미있어 열심히 한다고 하는 아동이 5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미는 없지만 수업이니까 열심히 한다 29.2%, 별로 재미가 없어서 대강 한다 14.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는 척만 하는 아동은 2.2%로 매우 적었다. 아동의 성별로는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재미는 없

지만 수업이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표 46> 입체 표현 활동에 대한 생각

구 분	작품을 만드 는 것은 재미 있어서 열심 히 한다	재미는 없지만 수업이니까 열 심히 한다	별로 재미가 없어서 대강 한다	하는 척만 한다	계	χ^2 (df)	p
남	99 (53.2)	48 (25.8)	34 (18.3)	5 (2.7)	186 (51.2)	6.15 (3)	0.104
여	98 (55.4)	58 (32.8)	18 (10.2)	3 (1.7)	177 (48.8)		
계	197 (54.3)	106 (29.2)	52 (14.3)	8 (2.2)	363 (100.0)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절반이상의 아동이 수업활동에 재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나타난 표현지도 시간을 방임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부정적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결과도 역시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재료 준비 방법 및 준비 실태 분석

아동들이 입체 표현에 필요한 재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4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7> 입체 표현 재료 준비방법

구 분	학교에서 제공한다	학교에서 제공 하는 것과 함 께 내가 따로 준비해 온다	계	χ^2 (df)	p
남	47 (25.3)	139 (74.7)	186 (51.2)	1.57 (1)	0.211
여	35 (19.8)	142 (80.2)	177 (48.8)		
계	82 (22.6)	281 (77.4)	363 (100.0)		

진체적으로 입체 표현에 필요한 재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함께 아동이 따로 준비해 오는 아동이 77.4%, 학교에서 제공한 재료를 사용하는 아동은 22.6%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로는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아동 스스로가 입체 표현 재료를 준비하는 아동이 더 많았으나 성별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들이 스스로 재료를 준비할 때 그 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표 4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재료를 교과서를 보고 준비하는 아동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제를 생각해보고 적당한 재료를 준비한다 33.1%, 교사가 안내해 준 것만 준비하는 아동 22.0%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아동은 교과서를 보고 재료를 준비하는 아동이 많은 반면에 여자 아동은 주제를 생각해보고 적당한 재료를 준비하는 아동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chi^2=24.15$, $p<.001$)

<표 48> 재료를 준비하는 방법

구 분	교과서를 보고 준비	교사가 안내해 준 것 준비	적당한 재료 준비	생활주변에서 준비	기타	계	χ^2 (df)	p
남	68 (36.6)	54 (29.0)	43 (23.1)	6 (3.2)	15 (8.1)	186 (51.2)	24.15*** (4)	0.000
여	65 (36.7)	26 (14.7)	77 (43.5)	3 (1.7)	6 (3.4)	177 (48.8)		
계	133 (36.6)	80 (22.0)	120 (33.1)	9 (2.5)	21 (5.8)	363 (100.0)		

*** $p<.001$

재료를 준비할 때, 주제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직접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 본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4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9> 주제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직접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 본 경험

구 분	자주 그렇게 한다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가끔 그렇게 한다	계	χ^2 (df)	p
남	28 (15.1)	56 (30.1)	102 (54.8)	186 (51.2)	7.49* (2)	0.024
여	47 (26.6)	43 (24.3)	87 (49.2)	177 (48.8)		
계	75 (20.7)	99 (27.3)	189 (52.1)	363 (100.0)		

* $p<.05$

전체적으로 재료를 준비할 때, 주제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직접 필요한 재료 준비를 가끔 하는 아동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 아동

27.3%, 자주 그렇게 하는 아동 20.7%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주제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직접 필요한 재료 준비를 하였고, 남자 아동은 여자 아동보다 주제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직접 필요한 재료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chi^2=7.49, p<.05$)

적합한 재료의 선택은 곧 충실한 표현활동과 연결된다. 아동들은 교과서나 교사의 안내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교사는 아동들이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세밀한 안내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은 스스로 재료를 선택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재료의 물성을 체득하게 되고 자율적으로 재료를 선정할 수 있는 소양과 안목을 기르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다양한 재료를 아동들에게 안내하고 체험하도록 해야하며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4) 재료의 선호에 대한 실태 분석

아동들이 사용해 본 재료를 살펴본 결과는 <표 50>과 같다.

<표 50> 사용해 본 재료

구 분	없다		있다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찰 흙	65	17.9	298	82.1
발포석고	362	99.7	1	0.3
비 누	304	83.7	59	16.3
종 이 죽	133	36.6	230	63.4
지 점 토	64	17.6	299	82.4
유 토	335	92.3	28	7.7
석 고 분	361	99.4	2	0.6
목 재	325	89.5	38	10.5
종이 및 기타 재료	306	84.3	57	15.7
계	363	100.0	363	100.0

전체적으로 지점토를 사용해본 아동이 8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찰흙 82.1%, 종이죽 63.4% 순으로 많이 사용한 반면에 대부분의 아동이 발포석고와 유토, 석고분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입체 표현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재료를 살펴본 결과는 <표 51>에 나

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입체 표현 재료로 지점토를 좋아하는 아동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찰흙 24.5%, 고무 찰흙 18.5%, 고구마, 감자, 무, 양초 등의 깎아 내는 재료를 좋아하는 아동 8.5%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아동은 남자 아동보다 지점토를 많이 좋아하였고, 남자 아동은 여자 아동보다 고무 찰흙을 더 좋아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chi^2=19.86$, $p<.01$)

<표 51> 입체 표현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재료

구 분	찰흙	지점토	고무 찰흙	석고	깎아 내는 재료	비누	기타	계	χ^2 (df)	p
남	45 (24.2)	66 (35.5)	50 (26.9)	6 (3.2)	12 (6.5)	5 (2.7)	2 (1.1)	186 (51.2)	19.86** (6)	0.003
여	44 (24.9)	81 (45.8)	17 (9.6)	6 (3.4)	19 (10.7)	8 (4.5)	2 (1.1)	177 (48.8)		
계	89 (24.5)	147 (40.5)	67 (18.5)	12 (3.3)	31 (8.5)	13 (3.6)	4 (1.1)	363 (100.0)		

** $p<.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들은 입체 표현 재료로 지점토를 가장 많이 좋아하였고,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이에 대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이 어떤 특정 재료를 좋아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5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2> 특정 재료를 좋아하는 이유

구 분	만지고 싶은 재료이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쉬워서	만들기 쉬워서	기타	계	χ^2 (df)	p
남	41 (22.0)	21 (11.3)	87 (46.8)	37 (19.9)	186 (51.2)	7.41 (3)	0.060
여	53 (29.9)	26 (14.7)	78 (44.1)	20 (11.3)	177 (48.8)		
계	94 (25.9)	47 (12.9)	165 (45.5)	57 (15.7)	363 (100.0)		

전체적으로 특정 재료를 만들기 쉬워서 좋아하는 아동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지고 싶은 재료이기 때문에 25.9%, 준비하기 쉬워서 12.9%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로도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즘에는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목적을 두고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아동들의 불만유무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5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3>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불만의 유무

구 분	있다	없다	계	χ^2 (df)	p
남	34 (18.3)	152 (81.7)	186 (51.2)	0.01 (1)	0.929
여	33 (18.6)	144 (81.4)	177 (48.8)		
계	67 (18.5)	296 (81.5)	363 (100.0)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불만이 없는 아동이 81.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불만이 있는 아동은 18.5%로 그다지 많이 않았다. 아동의 성별로도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이 큰 차이 없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 답변한 아동이 많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불만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 자료에 대한 불만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는 <표 54>과 같다. 양이나 수량이 부족하여 불만을 갖는 아동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더럽거나 많이 헐어서 20.9%, 자료의 일부만 제공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준비해야 한다 1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불만의 종류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양이나 수량이 부족하다	22	32.8
더럽거나 많이 헐었다	14	20.9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	3	4.5
품질이 좋지 않다	7	10.4
개인적으로도 준비해야 한다	13	19.4
제공이 없다	3	4.5
자료가 다양하지 못하여 자유로운 표현이 힘들다	4	6.0
불공평하게 나누어질 때가 있다	1	1.5
계	67	100

사용하는 자료는 거의 가소성재료로써 아동들이 쉽게 다루며 수정할 수 있어서 좋

아하는 재료이다. 그러나 이런 편중된 재료의 활용은 아동의 창의적 표현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재료의 종류와 활용방법에 대한 세밀한 안내로 재료에 대한 아동의 부담감을 최소화시켜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조형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들이 제공되는 준비물의 양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현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충분히 제공해 주어 표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5) 주제 표현 활동 실태

입체 표현을 할 때, 수업시간 이전에 미리 주제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5> 주제를 구상하는 시기

구 분	미리 생각한다	수업시간에 생각한다	별생각 없이 교과서를 보고 흉내낸다	계	χ^2 (df)	p
남	39 (21.0)	120 (64.5)	27 (14.5)	186 (51.2)	1.66 (2)	0.435
여	47 (26.6)	108 (61.0)	22 (12.4)	177 (48.8)		
계	86 (23.7)	228 (62.8)	49 (13.5)	363 (100.0)		

전체적으로 입체 표현을 할 때, 수업시간 이전에 미리 주제에 대한 구상을 수업시간에 하는 아동이 6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리 생각하는 아동 23.7%, 별생각 없이 교과서를 보고 흉내내는 아동 13.5%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로도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이 커다란 차이없이 주제에 대한 구상을 수업시간에 하는 아동이 많았다.

아동들이 작품을 만들 때 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표 5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작품을 아동 스스로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아동이 5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과서를 보고 모방하여 변형하는 아동도 36.9%로 비교적 많았으며, 교과서와 남의 것을 모방하는 아동은 각각 3.6%, 1.1%로 매우 적었다. 아동의 성별로는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교과서를 보고 모방하여 변형을

많이 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표 56> 작품 제작 방법

구 분	교과서를 보고 모방한다	교과서를 보고 모방하는데 약간은 변형시킨다	나의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남의 것을 보고 따라한다	기타	계	χ^2 (df)	p
남	5 (2.7)	62 (33.3)	111 (59.7)	4 (2.2)	4 (2.2)	186 (51.2)	7.60 (4)	0.107
여	8 (4.5)	72 (40.7)	91 (51.4)	-	6 (3.4)	177 (48.8)		
계	13 (3.6)	134 (36.9)	202 (55.6)	4 (1.1)	10 (2.8)	363 (100.0)		

아동들이 작품을 만드는 동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7> 작품을 만드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구 분	주제가 잘 나타나게 표현하려고 애쓴다	형태나 색채가 멋있게 표현되도록 애쓴다	마음 내키는 대로 표현한다	기타	계	χ^2 (df)	p
남	75 (40.3)	58 (31.2)	50 (26.9)	3 (1.6)	186 (51.2)	3.58 (3)	0.310
여	77 (43.5)	64 (36.2)	33 (18.6)	3 (1.7)	177 (48.8)		
계	152 (41.9)	122 (33.6)	83 (22.9)	6 (1.7)	363 (100.0)		

전체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동안 주제가 잘 나타나게 표현하려고 애쓰는 아동이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형태나 색채를 멋있게 표현되도록 애쓰는 아동 33.6%, 마음 내키는 대로 표현하는 아동 22.9%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로도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이 큰 차이 없이 주제가 잘 나타나게 표현하려고 애쓰는 아동이 많았다.

입체조형은 제작자의 생각과 재료의 특성이 고려되었을 때 의도된 생각의 전달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수업시간에 주제를 생각하고 표현한다는 대답이 많은 것은 종합적인 교육의 효과를 노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설문에서 교사들은 주제제시 및 재료에 대한 안내를 전시간 차시예고 시에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는 교사의 안내가 충분하지 못하여 아동들이 소홀히 여김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말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이 주제와 결부시켜 재료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한 재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물성을 체득하고, 조형능력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인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서를 보고 따라하거나 남의 것을 보고 표현하는 경우가 50%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창의성을 강조하는 미술교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적절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의 작품이나 교과서의 참고작품은 아동들의 창의성 발달을 저해하게 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며 참고작품을 제시하는 적절한 시간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6) 감상 활동 실태 분석

작품이 완성된 후 감상시간을 갖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8> 작품의 완성 후 감상시간 마련 여부

구 분	항상 갖는다	거의 갖지 않는다	가끔 갖는다	기타	계	χ^2 (df)	p
남	16 (8.6)	96 (51.6)	65 (34.9)	9 (4.8)	186 (51.2)	1.56 (3)	0.668
여	12 (6.8)	88 (49.7)	71 (40.1)	6 (3.4)	177 (48.8)		
계	28 (7.7)	184 (50.7)	136 (37.5)	15 (4.1)	363 (100.0)		

전체적으로 작품이 완성된 후 감상시간을 갖지 않는 경우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가끔 갖는 경우 37.5%, 항상 갖는 경우 7.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완성된 작품을 교실에 전시하는 아동이 4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음대로 하는 아동 27.0%, 집에 가져가는 경우 17.1%, 검사만 하고 버리는 경우 1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완성된 작품의 처리

구 분	교실에 전시한다	집에 가져간다	검사만 하 고 버린다	내 마음대 로 한다	계	χ^2 (df)	p
남	74 (39.8)	31 (16.7)	26 (14.0)	55 (29.6)	186 (51.2)	1.54 (3)	0.673
여	73 (41.2)	31 (17.5)	30 (16.9)	43 (24.3)	177 (48.8)		
계	147 (40.5)	62 (17.1)	56 (15.4)	98 (27.0)	363 (100.0)		

이 중에서 아동들이 조소작품을 집에 가져간 경우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60>과 같이 집에 두면 가족이 버리는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잘 보관하며 가족이 관심을 갖는 경우 33.9%, 잘 보관하지만 가족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 2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60> 조소작품을 집에 가져간 경우 처리 방법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잘 보관하며 가족이 관심을 갖는다	21	33.9
나는 잘 보관하지만 가족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16	25.8
집에 가는 길에 버린다	2	3.2
집에 두면 가족이 버린다	23	37.1
계	62	100

감상교육에 대한 실태는 교사의 실태 분석과 비슷하여 여기에서도 역시 교사의 올바른 인식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을 시사하고 있다.

(7) 아동들의 미술 교사에 대한 인식

아동들이 희망하는 미술교사를 살펴본 결과는 <표 6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 적으로 아동은 미술교사로 담임교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6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같은 학년에서 미술교과를 맡은 교사라고 응답한 경우가 21.5%, 미술교과 전담 교사 16.8%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미술교사로 담임교사를 희망 하는데 비해 여자 아동은 남자 아동보다 미술교과 전담교사를 희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chi^2=6.04$, $p<.05$)

<표 61> 희망하는 미술교사

구 분	담임 선생님	같은 학년에서 미술교과를 맡으신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미술을 맡으신 선생님	계	χ^2 (df)	p
남	124 (66.7)	39 (21.0)	23 (12.4)	186 (51.2)	6.04* (2)	0.048
여	100 (56.5)	39 (22.0)	38 (21.5)	177 (48.8)		
계	224 (61.7)	78 (21.5)	61 (16.8)	363 (100.0)		

* p<.05

이상과 같이 담임이 미술을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교사 설문 분석에서 나타난 미술 전담 교사 현황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미술을 비중요과목으로 인식한 결과 미술 전담교사를 교과외 특수정보보다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업무가 많아 바쁜 교사를 전담교사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바로 미술시간의 소홀한 운영으로 나타나게 되고 미술에 대한 아동들의 참여도와 흥미를 낮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술전담제가 교과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아동들이 미술전담교사에 대한 인식도도 달라질 것이다.

(8) 미술 행사 참가 실태

아동들이 참가해본 미술행사를 살펴본 결과는 <표 62>과 같이 그리기 행사에 참여한 아동이 6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아동은 19.3%로 나타났다.

<표 62> 참가해본 미술행사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그리기	174	69.9
만들기	48	19.3
기타	27	10.8
계	249	100

아동들이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미술대회를 살펴본 결과는 <표 6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63> 그리기 이외의 희망하는 미술대회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각종 만들기 대회	145	66.5
조각대회	23	10.6
서예대회	8	3.7
감상대회	7	3.2
꾸미기 대회	17	7.8
종이접기 대회	6	2.8
자유재료로 자유표현 대회	10	4.6
기타(모자이크대회, 벽화대회)	2	1.0
계	218	100

<표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만들기 대회를 희망하는 아동이 6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각대회 10.6%, 꾸미기 대회 7.8% 순으로 희망하였고, 서예대회와 감상대회, 종이 접기 대회, 자유표현 대회를 희망하는 아동은 각각 3.7%, 3.2%, 2.8%, 4.6%로 비교적 적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행사를 살펴보면 그리기 대회는 많지만 입체표현을 겨루는 대회는 거의 없다. 이는 자칫 미술이 회화가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라도 먼저 다양한 대회를 기획하고 아동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의 초등 미술 교육에 있어서 입체 표현 활동 지도 및 아동의 표현 활동 실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상황을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효율적인 미술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그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먼저 시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미술실이 없는 학교가 상당수를 차지하여 효율적인 미술 교육을 위한 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

둘째로 교사들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미술을 담당한 교사의 대부분이 교육과정의 재구성 측면에서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료의 선정에 있어서는 교과서나 교사용지도서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주로 제시하고 활용하는 재료로는 찰흙과 지점토 등의 가소성 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재료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표현활동 시간에는 아동의 표현활동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감상시간을 마련한다는 응답도 매우 적었으며 미술 시간에 자료를 반드시 활용한다는 응답도 매우 적었다. 미술 전담 교사 선정시에는 미술교과의 특성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미술교과와 관련한 새로운 이론이나 교수법을 접해 본 경험이 없다는 교사와 미술지도에서도 능력이나 전문지식의 부족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교사가 연구기관에 의한 연수의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아동들은 미술교과의 여러 영역 중에서 입체표현활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술 표현의 단계 중에서 발달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활용하는 재료가 찰흙과 지점토에 한정되어 있었고 재료의 준비도 교과서나 교사의 안내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주제와 관련하여 아동 스스로 재료를 선택하고 표현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표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활동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는 아동은 절반 밖에 되지 않고 교과서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주제 영역은 상상하여 나타내

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품완성 후 감상학습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실에 작품을 전시하고 수시로 감상할 수 있다는 대답도 지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미술교과에 대한 전담제가 시행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담임교사나 동학년에서 교환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술과 관련된 행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리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의 제주도내 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한 입체 표현 활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효율적인 미술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특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전담제 운영의 정상화는 아동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더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인적자원인 교사의 미술지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수업의 단계별 지도내용을 선정하고 이끌어 가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표현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 연수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학교실정 및 아동의 특성, 교과의 특성, 단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 할 수 있는 교사의 안목을 키운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교과지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차츰 해결되어 나갈 것이다.

셋째, 아동들의 특성에 맞는 지도를 위해서 교사는 아동의 발달단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고학년에 들어서면 아동들은 사실적인 표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계획적인 표현활동에서 큰 만족감을 얻는다. 따라서 고학년은 주제와 관련하여 재료를 준비하고, 재료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제를 표현하도록 하는 활동이 많이 필요하다. 아동의 이런 발달상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이 아동의 발달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발달지도단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술교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다양한 표현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행사를 다양화시켜야 할 것이다. 실태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아동들은 손으로 만지고 만들어내는 활동을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그리기 위주로 되어있다. 행사의 다양화는 아동의 입체표현활동에 있어서

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창의적인 표현활동의 기회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다섯째, 학교 시설의 확충은 아동들에게 미술경험을 풍부하게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이다. 마음껏 재료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의 확보와 기본적인 도구와 참고작품의 미비라는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지적되고 있으나 충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미술 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대한 행정가들의 인식의 부족에서 온 결과라 하겠다.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형식적인 시설투자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안목과 반성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미술-5)」,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미술-6)」,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서울특별시 인쇄 공업 조합
- 김봉권(1998), 「미술교육 이렇게 하자V」, 미술공론사
- 김봉권(1998), 「미술교육 이렇게 하자VI」, 미술공론사
- 김정(1989),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창지사
- 문형준(1995), 「아동미술 실기교실」, 미진사
- 새교실(1995), 「제6차 새 교육과정 연수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양경희(1999), 「열린 아동 미술 교육」, 학지사
- 이규선, 김동영, 전성수(1998), 「미술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이규선 외 5인(2000),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 전성수의(1998), 「야! 미술이 보인다」, 도서출판 예경
- 한국교육대학미술교육연구회(1990), 「미술교육」, 형설출판사
- E.W.Eisner(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1999), 도서출판예경
- 강기원(1998), “조형 재료의 체험을 통한 입체 표현력 신장 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우택(1996), “국민학교에서의 조소의 재료와 용구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재호(1985), “점토공작이 아동의 창의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홍익

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정은(1997), “아동미술의 조소적 입체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황미옥(1992), “초등 미술교육에 있어서 조소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황인건(1999), “초등미술에서 사람을 주제로 한 조소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Abstract>

A Study on the Cubic Expressing Activity of Art Education
in Primary School
- Focus on 5~6 grade Student of Primary School in Cheju Island -

Yi, Eun-sook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ang-hee

The Cubic Expressing Activity(CEA) is on the activity of sensitive stimulus, which can be express the inner world of children in the three-dimensional space. And it is a very important activity in an initiative spirit expansion and perfect human being's (include intellectual, righteous activities) growth of children. But there is no enough environmental situation in school today. So we can't do enough teaching about it. Thus in Primary Art Education in Cheju Island, the Cubic Expressing Activity is surveyed and analyzed. Through it, we try to look for the improvement about it, and it is the aim of this thesis. For this aim, I studied the literature of it, through it I looked for the character of carving and modeling, educational meaning, and developmental stage of children. And then I have arranged the purpose and contents of Art Education in Primary School. Through 5~6 grade teachers, 203, and children, 363 in Primary School, I put in operation of survey about the interest and learning the actual state of the Cubic Expressing Activity(CEA).

Looking at the survey, children had the best interest of the Cubic Expressing Activity(CEA) of all fields in Art Curriculum. In order to satisfy the hope of children and grow their abilities, we had to try hard. However, there were scare sides in them.

First of all, there were many difficult things about enough guidance of the beginning stage, which required the expressing activity in the fixing time. Many children felt th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1.

difficulty in expressing freely about what they want to express. Their using materials have a tendency to include a part of things, and various materials are being used, where is giving the students the opportunity of various thinking and experience. The poor environment and insufficient time in school is becoming the great obstacle in teachers' active teaching activities.

And now we have to govern (run) the responsibility course which is carrying out in a rational manner. We have to reveal the professionalism of Art Educational Course effectively. Nowadays, teachers don't have the opportunity of getting the new theory about Art Education. As the result, teachers should have the opportunity of study and training.

By doing so, teachers have to teach children their interest and the teaching activity of being suitable in developmental stage. Nowadays, children are changing in every ways. And children should evaluate their own painting activities by themselves. For them, we have to teach the learning of appreciative style to them through the appreciative time curriculum. We have to make the appreciative time intentionally. There are necessity of operating well the curriculum in order to development the Cubic Expressing Activity(CEA) of children by stages.

I can see that all events of relating to Art Contest are surrounding the pictures. Only the pictures are center of the events of relating to Art Contest. It is very far with the interest and desire of children for liking the Cubic Expressing Activity(CEA). If the pictures are center of all events of relating to Art Contest, we will think that the pictures are major part in Art Curriculum.

We will improve those problems through the school managing, as it were, it is using the personal resources properly. And Art teachers should improve their willingness through operating their teaching learning method, which must operate properly. The Educational Government Officers(EGO) should assist many financial things to teachers and school. They have to take the judgement and interest of the education. Through them, the problems that we have will improve gradually in the future.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본 설문지는 아동 미술 교육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초등학교의 입체표현 활동지도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연구에만 쓰여질 것임을 약속드리며 선생님들의 성의있는 응답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1) 담당학년 : ()학년
(2) 교직경력 : 5년 이하 () 6 - 15년 16 - 20년 () 21년 이상
(3) 성별 : (남 , 여)
(4) 전담시 희망교과목 ())

1. 학교에 미술실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있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④ 기타 ()
2. 학교에 갖추어진 용구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찰흙판 ② 찰흙보관통 ③ 조각도 ④ 작품진열대 ⑤ 주걱 ⑥ 펜치
⑦ 가위 ⑧ 고무그릇 ⑨ 나무판 ⑩ 궁글대 ⑪ 기타 ()
3. 선생님은 미술교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관심이 많고 좋아한다.
② 관심이 많으나 좋아하지는 않는다.
③ 관심이 없고 좋아하지 않는다.
4.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영역을 주로 많이 지도하시는 편입니까?
① 회화 ② 조소 ③ 디자인 ④ 서예 ⑤ 감상 ⑥ 골고루 지도한다.
5. 선생님은 현재 담임하고 있는 아동의 미술발달단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모른다. ③ 대강 알고 있다. ④ 몰라도 지도에는 상관이 없다.
6. 미술과 교육과정을 각급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학교별로 실정을 고려하여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
② 굳이 재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
③ 기타 :

16. 작품이 완성된 후 제작의도와 표현결과를 생각하며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① 반드시 감상한다.
- ② 시간의 부족으로 거의 감상 시간을 갖지 않는다
- ③ 시간 있을 때만 한다..
- ④ 기타 ()

17. 완성된 작품은 전시하고 있습니까?

- ① 반드시 전시한다. ② 전시하지 않고 집으로 보낸다. ③ 기타 ()

18. 전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장소의 부족 ② 보관의 어려움 ③ 시간 내 완성이 안되어서
- ④ 귀찮아서 ⑤ 기타 ()

19. 수업시간에 시청각 자료는 어느 정도 이용하십니까?

- ①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② 가끔 이용한다.
- ③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 ④ 기타 ()

20. 조소지도에 있어 시청각 자료는 어떤 것을 이용하십니까?

- ① 작품집이나 사진 ② OHP ③ 인터넷자료 ④ 학습용CD
- ⑤ 기타 ()

21.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료의 부족 ② 기자재의 부족 ③ 자료준비 시간의 부족
- ④ 기타 ()

22. 현재 학교에서 전담교사가 담당하는 교과는 무엇입니까?

- ① 미술 ② 실과 ③ 체육 ④ 자연 ⑤ 음악 ⑥ 기타

23. 현재 학교에 미술전담교사가 있다면 어떤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 ① 업무가 많아 바쁜 선생님 ② 미술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
- ③ 나이가 많은 선생님 ④ 기타 ()

24.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과 전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미술교과만의 특성을 살려 지도할 수 있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
- ② 미술교과에 관심이 있는 교사를 전담교사로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기타 :

25. 요즘 새롭게 제시되는 미술 교육 이론이나 교수법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6. 있다면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까?

- ① 교원연수의 기회를 통하여
- ② 미술교육잡지를 통하여
- ③ 교육방송을 통하여
- ④ 각종 교육잡지와 간행물을 통하여
- ⑤ 기타 :

27. 선생님께서는 미술 교과 지도를 위한 교사들의 연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꼭 필요하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28. 연수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방학 중 1-2주
- ② 주1회
- ③ 전담교사의 1년 이상의 연수
- ④ 기타 ()

29. 연수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교육청의 일괄적인 연수계획에 의해서
- ② 연구기관, 교육기관에 의해서
- ③ 각종 연구회의 활동에 의해서
- ④ 기타 ()

30. 올해 입체표현 활동 지도는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참고 : 교육과정상 5학년은 18회, 6학년은 14회 설정되어 있음)

- ① 10 ~ 12 회
- ② 13 ~ 15회
- ③ 16 ~ 18 회
- ④ 19 ~ 21회
- ⑤ 22회 이상

31.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조형요소 및 원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도하기 쉽다.
- ② 지도하기 어렵다.
- ③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 ④ 기타 :

32. 입체 표현 지도에 있어서 선생님이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어려움이 많은 차례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① 능력이 부족하다 ()
- ②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
- ③ 교수자료가 부족하다 ()
- ④ 학습수준에 따른 아동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
- ⑤ 미술교육 환경이 나쁘다 ()
- ⑥ 기타()

아동용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미술시간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좋은 수업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 성적이나 생활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을 쓰거나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 주세요.

1. 오늘 날짜 : 2000년 월 일
2. () 초등학교 ()학년
3. 성별 : 남 () 여 ()

1.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
2. 미술과 학습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어느 것입니까?
① 그리기 ② 찰흙으로 나타내기 ③ 만들기 ④ 서예 ⑤ 감상
3. 입체로 나타내기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작품을 만드는 것은 재미있어서 열심히 한다.
② 재미는 없지만 수업이니까 열심히 한다.
③ 별로 재미가 없어서 대강 한다.
④ 하는 척만 한다.
4. 입체 표현에 필요한 재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① 학교에서 제공한다.
②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함께 내가 따로 준비해 온다.
5. 내가 재료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나요?
① 교과서를 보고 준비한다.
② 선생님이 안내해 준 것만 준비한다.
③ 주제를 생각해 보고 적당한 재료를 준비한다.
④ 생활주변에서 아무거나 준비한다.
⑤ 기타 :
6. 재료 준비를 할 때, 주제를 생각해 보고, 생활주변에서 직접 필요한 재료를 찾아 준비해 간 적이 있나요?

- ① 자주 그렇게 한다.
 - ②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 ③ 가끔 그렇게 한다.
7. 미술 시간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입니까?
 ①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 ② 무엇을 표현할까 생각하는 단계
 ③ 스케치하는 단계 ④ 표현하는 단계 ⑥ 감상하는 단계
8. 다음 중 올해 사용해 본 재료에 표시해 봅시다.
 ① 찰흙 ② 발포석고 ③ 비누 ④ 종이죽 ⑤ 지점토 ⑥ 유토
 ⑦ 석고분 ⑧ 목재 ⑨ 기타 ()
9. 입체 표현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재료는 어느 것입니까?
 ① 찰흙 ② 지점토 ③ 고무찰흙 ④ 석고
 ⑤ 고구마, 감자, 무우, 양초 등 깎아내는 재료 ⑥ 비누 ⑦ 기타 :
10. 왜 그 재료를 가장 좋아합니까?
 ① 만지고 싶은 재료이기 때문에 ② 준비하기가 쉬워서
 ③ 만들기 쉬워서 ④ 기타 ()
11. 학교에서 제공하는 재료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① 있다 ② 없다
12. 불만이 있다면 어떤 점이 불만인지 자세히 적어 보세요.
 ()
13. 입체 표현을 할 때, 수업 시간 이전에 미리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여 들니까?
 ① 미리 생각한다. ② 수업시간에 생각한다.
 ③ 별생각 없이 교과서를 보고 훑내낸다.
14. 입체로 표현할 때 어떤 주제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① 경험한 것 나타내기 ② 상상한 것 나타내기
 ③ 보고 나타내기 ④ 기타 :
15. 작품을 만들 때 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① 교과서를 보고 모방한다.
 ② 교과서를 보고 모방하는데 약간은 변형시킨다.
 ③ 나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④ 남의 것을 보고 따라 한다.
 ⑤ 기타 :

16. 작품을 만드는 동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 ① 주제가 잘 나타나게 표현하려고 애쓴다.
- ② 형태나 색채가 멋있게 표현되도록 애쓴다.
- ③ 마음 내키는 대로 표현한다.
- ④ 기타 :

17. 작품이 완성되면 계획과 비교하여 보고 잘 된 점을 찾아보는 시간(감상시간)을 갖나요?

- ① 항상 갖는다.
- ② 거의 갖지 않는다.
- ③ 가끔 갖는다.
- ④ 기타 ()

18. 완성된 작품은 어떻게 합니까?

- ① 교실에 전시한다.
- ② 집에 가져간다.
- ③ 검사만 하고 버린다.
- ④ 내 마음대로 한다.

19. 조소작품을 집에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 ① 잘 보관하며 가족이 관심을 갖는다.
- ② 나는 잘 보관하지만 가족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 ③ 집에 가는 길에 버린다.
- ④ 집에 두면 가족이 버린다.

20. 미술시간에 어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좋습니까?

- ① 담임 선생님
- ② 같은 학년에서 미술교과를 맡으신 선생님
- ③ 우리 학교에서 미술을 맡으신 선생님

21. 미술시간에 어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 ① 담임 선생님
- ② 같은 학년에서 미술교과를 맡으신 선생님
- ③ 우리 학교에서 미술을 맡으신 선생님

22. 올해 여러 가지 미술행사에 참가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참가 했었나요? .

- ① 그리기 ② 만들기 ③ 기타 :

23. 만약에 그리기 이외의 미술대회를 한다면 어떤 분야의 대회를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